

## 2025 한국교회 '10대 뉴스'... 선교 140주년·AI와 목회 등

### '기독일보'가 돌아본 2025년 한국교회

다사다난했던 2025년 한 해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 지난 약 1년 동안에도 한국교회에는 우리의 눈길을 끌었던 크고 작은 뉴스들이 있었다. 기독일보는 올해를 정리하며 '2025 기독교 10대 뉴스'를 선정해 1위부터 10위까지 순서대로 정리했다.

기독일보 편집부

#### 1.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 기념 행사



2025 한교총 부활절 연합예배가 열린던 모습 ©기독일보 DB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의 입국을 기점으로 하는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아 올해 한국교회에선 다양한 기념 행사가 이어졌다. 부활절 연합예배는 140주년을 기념해 대규모로 드려졌으며, 선교사들이 처음 발

을 내디딘 인천 제물포에서는 기념 퍼레이드와 문화 공연이 열렸다. 이밖에도 기념 학술제 및 포럼 등 지난 140년의 역사를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미래 선교 전략을 논의하는 행사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 2. 올해도 부결된 '목회자 정년 연장'



지난 9월 예장 합동 제110회 총회가 진행되던 모습. ©기독일보 DB

목회자 정년 연장 문제는 수년간 교단 정기총회 '뜨거운 감자'였다. 예장 합동은 올해도 연장안을 부결하고 '만 70세를 유지했다. "후배 목회자들의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예장 백

석의 경우 정기총회에서 사실상 정년을 없애는 내용으로 규칙을 개정했다가 논란이 되자 '현행 75세 그대로 유지하기로' 다시 결정했다. 예장 고신도 정기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뤘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1년간 더 연구하기로 했다.

#### 3. 시국 관련 '국가비상기도회' 및 탄핵 찬반 집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일어난 정치적 급변 사태는 교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대통령 탄핵을 두고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벌어졌으며, 이는 찬반 집회로

까지 이어졌다. 대표적 탄핵 반대 집회였던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는 지금도 구속된 손현보 목사(부산 세계교회)가 주도했다. 헌법재판소는 결국 지난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으며, 얼마 뒤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후 들어선 특검은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와 김장



지난 2월 8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현장. ©뉴스시스

#### 4. 기하성-예장 백석 통합 논의

최근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와 예장 백석(대표총회장 장종현 목사) 간의 통합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며 교계에 큰 관심을 모았다. 각각 웨슬리와 칼빈의 신학 전통 위에 있는 두 교단이 통합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이슈였다. 다만 기하성은 최근 "우리 교단과 백석 교단의 통합을 진행하기 위한 전권위원회 구성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나는 듯한 입장을 보이면서, "선교적 교류를 위한 선교연합체든 통합이든 백



과거 한교총 정기총회에서의 이영훈 목사(오른쪽)와 장종현 목사 ©기독일보 DB

석 교단과의 공식적인 소통과 협의를 위해 전권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라고 했다.

#### 5. 교회와 목회 속으로 깊이 들어온 AI

AI(인공지능)의 급속한 발달은 교회와 목회에도 크게 영향을 끼쳤다. AI는 목회 현장의 실질적인 도구이자 신학적 성찰의 대상으로 깊이 자리 잡았다. 일부 교단에선 'AI 윤리 지침'을 마련하기도 했다. 가장 큰 논쟁은 챗지피티(ChatGPT) 등 '생성형 AI'를 설교 작성에 과연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자료 수집과 예화 검색 등에 AI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것부터, AI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신앙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AI 관련 기독교 서적들. ©최승연 기자

#### 6. 세상 떠나 하나님 품으로

원로 목회자와 교계 인사들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故 김준근 목사의 부인인 전효심 사모, JAMA 설립자인 김준근 박사, 아신대 선교대학원 소윤정 교수, 김경재 한신대 명예교수, 광주중앙교회 한기승 원로목사, 미국의 대표 복음주의 목회자인 존 맥아더 목사, 신경하 전 감독회장, 김삼봉 예장 합동 중경총회장, 새중앙교회 박종식 원로 목사 등이 별세했다.



故 박종식 원로목사 영정 사진. ©새중앙교회

#### 7. 대형교회 리더십 교체

지구총교회가 지난 4월 김우준 목사를 제4대 담임으로 청빙했다. 당시 교회 사무총회에서 성도 97.6%가 그를 담임으로 청빙하는 것에 찬성했다. 김 목사는 "모두가 제자 되어 모두를 제자 삼는 교회"가 목회철학이라고 밝혔다. 지구총교회는 "김 목사와 함께 선교적 교회, 영혼을 치유하는 교회, 다음세대를 살리는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사랑의교회도 사랑의빛선교교회 윤대혁 목사(51)를 제3대 담임으로 청빙하기로 최근 만장일치 결의했다. 교회 측에 따르면 윤 목사는 주후 제직회,



지구총교회 제4대 담임인 김우준 목사(왼쪽)와 사랑의교회 제3대 담임으로 청빙된 윤대혁 목사(오른쪽) ©기독일보 DB

공동의회 등의 위임 절차를 거쳐 이 교회 제3대 담임목사로 부임하게 된다고 한다. 이 외에도 국내 여러 대형교회들이 차기 담임목사 청빙을 준비하고 있다.

#### 8. 성평등가족부 출범



'성평등가족부 반대 국민대회' 참석자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독일보 DB

정부가 기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고 하자, 교계를 중심으로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핵심 주장은 부처 명칭의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양성평등'과 달리 남녀 이외 제3의 성까지 포함한다는 것이었다. '생물학적 성(Sex)'을 넘어 다양한 성 정체성을 포괄하는 개념을 부처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헌적이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또 성평등가족부 신설이 결국 국회에서 막혀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정부 부처 차원에서 강행하려는 포석일 것이라는 의혹도 있었다. 하지만 성평등가족부는 끝내 출범했다.

#### 9.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축소 논란

교육부가 지난 8월, 2008년 이후 변화된 대학 현황을 반영한다며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명단을 축소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해 교계 반발을 샀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기존 21개 지정 법인을 11개(대학 6곳, 대학원대학 5곳)로 절반 가까이 줄이는 것이었다. 총신대,

장신대, 서울신대, 침신대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 신학교들이 기존 명단에서 대거 제외돼 파장이 컸다. 이에 한국교회 총연합회와 주요 교단은 즉각 성명을 발표, 정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교계의 거센 반발에 교육부는 결국 해당 개정안을 사실상 무기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 10. 영남지역 대형산불과 교회 피해 및 구조

지난 3월 경북 의성과 안동, 영덕을 비롯해 경남 산청 등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해 많은 피해를 남겼다. 해당 지역의 교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예배당과 목회자의 사택이 불에 타는 등 고통을 겪었다. 이런 아픔의 현장에서

교회의 사랑 실천도 빛을 발했다. 구세군과 한국교회봉사단 등은 이재민과 소방대원들에게 매일 수천 명분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구조활동을 벌였다. 교단과 연합기관 차원의 구조자금 모금도 진행됐다.

## 액상 향균/항바이러스/항곰팡이 소재 전문기업 트윈위즈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구단지 1길 16, 4층 ☎ 055-286-9004

### 도료 / 라텍스



가전/가구 필름



기능성 페인트



라텍스 장갑



도어락/손잡이



차량용 필름/디스플레이



생활용 도료/코팅액

※ 제품의 색상, 외관 및 특성 변화 없이 향균/항바이러스/항곰팡이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소재







# 한기총 “낮아짐으로 오신 사랑, 삶으로 실천해야”

## 2025년 성탄절 메시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사진>, 이하 한기총)가 최근 ‘2025년 성탄절 메시지’를 발표하고, 성탄의 의미를 “낮아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제시하며 한국교회와 사회가 맞이 아닌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기총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마 1:23)는 말씀을 인용하며, “거룩한 성탄을 맞아 빛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사회와 나아가 온 세계 위에 충만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가정과 사회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 메시지에서 한기총은 성탄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낮아짐의 실천이었으며, 사랑의 회복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광의 보좌를 떠나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고 밝혔다.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는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한기총은 험벗고 굶주린 이들에게 말로만 위로하는 태도를 지적하며, “사랑은 말로만 존재할 수 없고, 행동 없는 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은 언제나 행동으로 드러났으며, 병든 자를 만지시고 소외된 자와 함께하시며 굶

주린 무리를 먹이셨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을 언급하며 “성탄의 정신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한기총은 “종과 같이 무릎을 꿇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묻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도전을 준다”며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자리에 서지 않으셨고, 섬기는 자리로 내려오셨다”고 밝혔다. 이는 “제자의 길이며 믿음의 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한 한기총은 세상의 가치관과 성탄의 메시지를 대비시키며, “세상은 높아지

는 것을 성공이라 말하고 더 많이 차지하는 것을 능력이라 여기지만, 성탄의 주님은 낮아짐의 길을 통해 구원을 여시고 사랑의 섬김을 통해 생명을 주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회와 사회, 가정과 일터를 향해 “우리는 얼마나 낮아지고 있는지, 얼마나 실질적인 사랑을 선택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기총은 “말의 권위는 직분이나 자리에 있지 않고 삶의 진실함에 있다”며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신앙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아짐을 통해 높아지고, 섬

김을 통해 존귀하게 된다”며 “성탄은 이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 삶 속에 다시 새기게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기총은 “이제는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며 “사랑과 섬김과 겸손이 이 시대를 밝히는 성탄의 빛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듯이, 우리도 세상 속으로 같은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낮아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다시 이 땅에 전해지기를 소망한다”고 메시지를 마무리했다. 김진영 기자

## 세기총 “성탄절,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임하길”

## 2025년 성탄절 메시지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기현 장로<사진>, 이하 세기총)가 최근 ‘2025년 성탄절 메시지’를 발표하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눅 2:14)라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성탄의 참된 의미를 되새길 것을 호소했다. 세기총은 메시지에서 성탄절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참 소망의 길을 열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기쁨의 날”이

라고 규정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이 기쁜 성탄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한국교회와 전 세계 한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이어 성탄의 의미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보내신 사건이며, 질망 가운데 있던 인류에게 구원의 소망이 주어진 날”이라고 강조하고, 이 거룩한 의미가 “세계 각처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700만 한국인들과 북한 동포와 모든 이웃에게 살아 있는 현실로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전했다. 세기총은 오늘날의 세계 상황을 언급하며 “세계는 물질적 풍요를 이루었지만

동시에 불안과 분열, 증오와 폭력으로 상처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높은 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낮은 자, 버림받은 자를 품으신 구주로 오셨다”며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비우신 사건이며,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화해와 섬김으로 나아가라는 부르심을 듣는 날”이라고 밝혔다. 특히 세기총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한국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강조했다. 세기총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 디아스포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평화를 위해 헌신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밝히며, “분열 대신 화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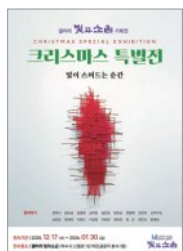
를, 혐오 대신 용납을, 무관심 대신 연대를, 절망 대신 소망을 선포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다. 세기총은 “분열과 갈등이 극심한 시대에 교회가 먼저 화해와 연대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교회는 진영의 논리에 갇히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평화,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양심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탄은 “화해의 사명을 회복하라고 촉구하는 날”이라고 덧붙였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자유평화통일을 위한 기도는 멈추지 말아

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기총은 “한반도의 평화는 정치적 이해를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영적 과제”라며 “전 세계 한국교회가 연합해 한반도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탄의 실천적 과제로 고통당하는 이웃을 향한 나눔과 연대를 제시했다. 세기총은 “성탄의 기쁨은 가장 약한 자들에게 향해야 한다”며 “가난한 자와 약한 자, 소외된 이웃과 난민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성탄의 기쁨을 현실로 만드는 길”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다음 세대를 향해 “정치가 아니라 이해와 동행을 제공해야 한다”며 교육과 문화, 선교의 영

역에서 신앙의 기쁨을 발견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세기총은 “성탄의 소망은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라며 “가정과 사회에서, 이웃과 선교지에서, 갈등과 분열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증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성탄의 기쁨과 은총이 한국교회와 디아스포라 700만 한인인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한다”며 “성탄의 빛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고통 속에 있는 이웃에게 위로와 치유를 주며 분열된 인류 가운데 새로운 평화를 이루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 여수 갤러리 ‘빛과소금’, 개관 2주년 맞아 크리스마스 특별전

## 기독 작가 18인 참여 성탄의 빛을 예술로 묵상



여수에 자리한 문화예술공간 갤러리 ‘빛과소금’이 개관 2주년을 맞아 크리스마스 특별전 <빛이 스며드는 순간>을 연다. 전시는 18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전시는 지난 2년간 ‘빛과 소금’이라는 사명을 불붙고 걸어온 갤러리의 여정을 되돌아보는 자리이자, 성탄의 의미를 예술로 묵상하는 기획전이다. 회화와 입체 작업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해

온 기독 작가 18명이 참여해, 각자의 언어로 ‘빛’을 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전시 제목인 ‘빛이 스며드는 순간’은 단번에 어둠을 몰아내는 강렬한 빛이 아니라, 일상의 틈과 마음의 깊은 곳으로 조용히 스며드는 성탄의 빛을 뜻한다. 작품들은 화려한 장식보다 깊은 여운에 초점을 맞추며, 상처와 고단함 속에서도 희망이 시작되는 순간을 포착한다. 참여 작가는 금보성, 김동영, 김복동, 변영혜, 변진미, 선우미숙, 심유림, 안태이, 이광수, 이영희, 이종한, 정미경, 최은, 최인선, 강리나, 김준영, 방효성, 황해성 등 총 18명이다. 대부분 지난해 크리스마스 전시에 함께했던 작가들로, 이번 전시를 통해 다시 한자리에 뜻을 모았다. 갤러리 빛과소금은 2023년 12월 6일,

췌마린글로리 조성종 화장이 외조부 고(故) 해사 정희수 목사의 신앙적 유언인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을 품고 개관한 문화예술공간이다. 단순한 전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예술을 통해 신앙의 본질과 삶의 의미를 나누는 문화사역의 장으로 운영돼 왔다. 개관 이후 지금까지 12회의 자체 기획전과 11회의 대관 전시를 진행하며 지역 예술인들과 교류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전시 첫날인 18일 저녁 7시에는 여수기독교단체총연합회(이하 여기총) 주관으로 개관 2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여기총 수석부회장 문상하 목사의 사회로, 여기총 사무총장 한성률 목사의 기도, 여기총 대표회장 박종석 목사의 설교, 여수 은퇴목사회 회장 심재동 목사의 축



갤러리 ‘빛과소금’ 개관 2주년 크리스마스 특별전 오픈 감사예배 모습(왼쪽), 전시장 전경(오른쪽) ©주최 측 제공



도 등의 순서로 드렸다. 설교에서 박종석 목사는 ‘사랑의 선순환’(요13:34)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예배 이후에는 작가와의 만남과 함께 성탄 음악회가 이어졌다. 음악회에서는 바이올린 이은주, 피아노 김수현이 참여해 ‘물도바’, ‘하나님의 은혜’, 크리스마스 캐럴 등을 연주하며, 갤러리 2주년과 성

탄의 의미를 기념했다. 최원 관장은 “빛과소금 갤러리의 진정된 중인과 운영자는 하나님이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에벤에셀의 고백처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사랑감을 갖고 하나님의 뜻이 이 공간을 통해 아름답게 이뤄지도록 기도한다”고 인사

말을 전했다. 한편 갤러리 빛과소금은 여수시 신월로에 위치한 마린글로리 본사 1층이다. 현재 은퇴목사회 등 13개 교계 단체가 함께 사용하는 여수기독교연합회관 내에 있다. 예술과 예배, 지역사회가 자연스럽게 만나는 ‘열린 신앙 문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백선영 기자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지금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눅 2:14

기쁨의교회 담임목사

- 예배
  -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30분
  - 새벽예배 오전 5:30
  - 금요HR예배 오후 8:30
- 다음세대예배
  - 주일학교예배 오전 9시
  - 중고등부예배 오전 11시 20분
  - 대학부예배(토) 오후 12시
  - 청년부예배 오후 2:30
  - 사랑채플(장애인예배) 오전 9시
- 방송설교안내
  - CTS TV : 매주 월요일 오전 7:50 / 생명의 말씀
  - 서울극동방송 : 매주 금요일 오전 11:45 ~ 11:55 / 빛을 따라서
  - 영동극동방송 : 매주 토요일 오후 1:00 ~ 1:30 / 오늘의 양식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96 T.031-713-0691

joyfulchurch.org



# 감리회, 강화군에 ‘평화통일기도의집’ 준공

김정석 감독회장  
“통일의 초석 되길”

기독교대한감리회(김정석 감독회장, 기감)가 강화군 교동면 지식리에 ‘평화통일기도의집’을 건축하고, 최근 준공감사예배를 드렸다.

올해 ‘한국선교 14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사업을 전개해온 기감은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기독교인들과 실향민들이 수시로 찾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를 설립하기로 하고 연초부터 건축을 추진했다.

평화통일기도의집은 240평 대지에 연건평 26평으로서 1층(11.82평)은 회의실과 휴게실이며 2층은 기도실(14.84평)로 꾸몄다.

준공감사예배에는 김정석 감독회장을 비롯해 기감 본부 임원들과 건립추진위원장 황규진 감독(중부연회) 등 내외빈 150여 명이 참석했다.



‘평화통일기도의집’ 준공감사에배가 진행되고 있다. ©기감

김정석 감독회장은 “분단의 고착화로 인해 통일의지가 희미해지는 시대”라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조국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곳이 통일을 위한 상징적 기도처가 되길 바란다”며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가 통일의 초석이 되길 기원한다”라고 덧붙였다.

건립추진위원장인 황규진 감독은 환영사에 “기도의집이 민족의 평화통일과 복음화를 위해 귀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축사한 사회평신도국 위원장 유병용 감독(서울남연회)은 “‘기도의집’이 비록 작은 건물이지만 감리회 140년의 선교 역사와 민족의 염원을 담아 세운 곳”이라며 “후대에 대한민국의 소중한 유산이 될 것”이라고 했다.

예배에서는 김정석 감독회장이 건립에 헌신한 이들로 △건립추진위원장 황규진 감독 △건립 제안자 김의중 목사(남북평화재단 경인본부 상임대표) △건립추진상임위원장 김영대 목사 △교동지역연합회 대표 김영돈 목사 △건축가 노승진 박사(도시공학) △남선교회 전국연합회장 박재혁 장로 △시공사 대표(주식회사 서강종합건설) △토지 제공자 진홍성 집사와 변정순 권사 등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준공예배는 참석자들의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 제창과 김정석 감독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예배 후에는 내빈들의 테이프 커팅식이 이어졌다. 김진영 기자

# 기침 여사역자연합회 창립... “건강한 교회와 사회 세우는 리더십 다짐”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여성 사역자들이 목사 안수 제도 도입 12년 만에 첫 연합 조직을 출범했다. 기침 여사역자연합회(회장 배정숙 목사)는 최근 대전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내 페트라홀에서 창립감사예배를 드리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파영민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총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일어나고 빛을 발하라는 것”이라며 “복음 전도는 실패가 없으며, 말씀을 전하는 그 자체가 빛”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롭게 출범한 여사역자연합회가 빛을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빛을 비추는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배정숙 회장은 창립 취지를 설명하며 연합회의 비전과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그는 “함께 세우는 리더십으로 건강한 교회와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비전”이라며 “여성 목회자들의 연대와 성장을



예배를 마친 후 기념촬영. ©기침

통해 교회와 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확장해 가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향후 1년 동안 행복세미나 개최, 지역 캠퍼 개설, 후원자 발굴, 교단 기관 및 다른 분야와의 협력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세미나를 연례 화하고 차세대 리더 발굴과 멘토링 연계, 여성 사역자 네트워크 강화 등을 계

획하고 있다.

최인수 기침 총회장은 “총회가 사역의 길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축하를 전했다.

연합회는 김사라형선 한국침신대 교수 등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조직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예배는 그레이스 합창단의 찬양과 최 총회장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노형구 기자

# 한강 문학... “인간의 길만 있고 하나님의 길 없어”

박요한 교수,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에서 한계 지적

기독교학술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양재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한강 문학의 세계관’이라는 주제로 제114회 월례학술포럼 기도회 및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독교학술원 측은 개회사를 통해 “2024년 10월 한국의 소설가 한강(韓江, Han Kang)이 스웨덴 한림원에 의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며 “한강은 한국 작가 가운데 처음으로, 그것도 아시아 여성 작가로도 최초로 수상자가 되었다. 이 점에서 그의 수상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는 “한강의 문학이 인간 삶과 세계의 비리, 불의 모순, 참혹, 불평등을 문학적으로 고발하면서도 절망과 허무의 지면에 영원한 소망과 구원, 희망과 신뢰의 세계를 추구하는 차원 높은 문학으로 비상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한강이 삶(고통, 욕망, 갈등, 부조리, 전쟁, 폭력, 참혹, 허무, 죽음)의 현상적 묘사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지니는 깊은 함축(각성, 정화, 결해, 성숙, 화해와 사랑, 평화, 용서와 구원, 생명, 영원의 궁극적 삶의 예술)을 노래하는 문학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의 의의는 무엇일까

발제를 맡은 박요한 교수(前 대전신대 대학원장)는 ‘한강문학의 세계관 - 한강 문학의 비판적 성찰: 기독교 세계관 관점에서는’ 주제로 발제했다. 박 교수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먼저, 대한민국이 두 번째로 받는 노벨상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으며, 둘째로 아시아 여성 작가로도 최초로 수상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고, 셋째로 K-Culture(한류문화)의 일환, 즉 K-문학의 세계화를 이룬 문학적 쾌거”라고 했다.

그는 “한강 작가의 국제적 성공과 노벨문학상 수상 가능성 논의에서도 번역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핵심 요인”이라며 “그녀의 작품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주요 문학상(특히 맨 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수상한 과정은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 1899-1972)의 경우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고 했다.

이어 그는 “한강의 작품은 처음부터 한국어로 쓰였기 때문에, 영어 번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해외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 전환점을 만든 인물이 바



제114회 기독교학술원 월례학술포럼 참석자 기념 사진. ©기독교학술원

로 영국 번역가 데버러 스미스(Deborah Smith)라고 말하고, “데버러 스미스는 20대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여 한강의 ‘채식주의자’(2007)를 영어로 번역했다. 영어판 The Vegetarian을 2015년에 출간했고, 2016년 맨 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시인 한강과 ‘시인 다윗’의 차이

박 교수는 “시인 한강과 ‘시인 다윗’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며 “둘 다 시인으로 거인 골리앗을 때려 눕힌 소년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형

성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그는 ‘감수성이 풍부한 감 잡은 사람’, ‘칠감(七感, 감각, 감동, 감복, 감사, 감음, 감탄, 감응)의 시인이 되었다”고 했다.

이어 “시편의 서시(1편)에는 행복한 사람(의인)과 불행한 사람(악인)이 대조되어 묘사되고 있다”며 “행복과 불행, 의인과 악인(죄인)의 대조는 ‘하나님의 말씀’ 여부에 있음을 역설한다”고 했다.

또한 “다윗의 시편(23편)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인가를 잘 보여준다”며 “그래서 다윗은 술한 고난을 경험했지만 자신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삼하 6:12-15), 전율을 동반한 축제 같은 행복한 생애를

살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을 받지 않은 비기독교인인 작가 한강은 많은 문학상을 수상했고, 최고의 영광인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수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은 사람이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 표정은 그리 밝지 않다. 어둡고 고독하고 우울하다”며 “왜 그럴까. 다윗이 간직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즉, 길(진리)을 찾은(발견한) 자의 유레카의 감격, 또는 사망 권세 이기신 승리의 주님을 만난 부활의 감격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기독교 문화 창달 위해 K-기독교 문학자 발굴과 양성 시급

그는 “작가 한강의 문학에는 질문만 있고 대답이 없으며, 인간의 길만 있고 하나님의 길이 없다”며 “내재는 있어도 초월이 없다. 초월이 없는 문학은 구원과 생명이 결여되고, 그래서 시간 속에서 함몰되며, 결국 허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한강 작가의 문학적 한계와 인간적 불행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서는 비기독교 작가인 한강의 K-문학을 넘어 문화의 옷을 입은 세계에 내놓을 만한 K-기독교 문학자 발굴과 양성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진행된 개회예배는 곽해원 교수(경기대 교양학부 초빙교수)가 ‘상처와 자학의 페미니즘을 넘어서: 상생과 존엄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창 1:27, 엡 5:21)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 교수는 “우리는 지금 중요한 선택 앞에 서 있다. 상처의 서사를 계속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공존의 서사를 새롭게 써 내려갈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문학이든, 젠더 담론이든, 사회운동이든 그 방향은 결국 인간의 존엄을 세우는 곳을 향해야 한다”며 “하나님은 남자를 통해 여자를 돕게 하였고, 여자를 통해 남자를 돕게 하였고, 함께 하나님 형상을 이루도록 창조하셨다. 이에 남녀는 서로의 결핍을 채우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깊이를 함께 배워가는 동역자”라고 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이제 우리는 상처와 적대의 시대를 지나 상생과 존엄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다. ‘남성과 여성은 내가 창조한 상생과 존엄의 질서로 돌아오라!’ 우리가 이 부르심에 진실하게 응답할 때 우리 사회는 젠더 전쟁의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라는 새로운 영적 혁명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지동 기자

담임목사 이영훈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한 크리스마스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마태복음 1:21)

기독교 대한 연합의 성회  
**여의도순복음교회**  
YOIDO FULL GOSPEL CHURCH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15 T.02-6181-9191

전 세계가 함께 하는 은혜의 시간 2026.1.5 - 1.17

# 열두광주리새벽기도회

[주제] 믿음의 영웅들 [설교] 이영훈 목사 [장소]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  
[시간] 새벽 5시 30분(월~금) / 새벽 6시 30분(토)(전 세계 유튜브 생중계)  
새벽기도회는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같은 시간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 비극으로 물들 뻔한 LA 새해전야… FBI, 폭탄 테러 모의 일당 체포

터틀 아일랜드 해방 전선, 극좌 성향의 친팔레스타인·반정부·반자본주의 조직

美연방정부가 새해 전야를 기점으로 남가주 전역에서 테러 공격을 모의한 혐의로 용의자 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미 연방수사국이 지난 13일(주일)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로스앤젤레스 동쪽 도시 루서른 밸리(Lucerne Valley)에서 체포됐다. 이들은 계획된 폭탄 테러에 앞서 사제 폭발물(IED)을 시험 제작·점검하려 했던 혐의를 지닌다. FBI는 테러범들이 로스앤젤레스 전역의 여러 장소에 배낭 폭탄 형태로 제작된 사제 폭발

장치를 설치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팸 본디(Pam Bondi) 법무장관에 따르면, 이들은 ‘터틀 아일랜드 해방 전선’(Turtle Island Liberation Front)이라는 극좌 성향의 친팔레스타인·반정부·반자본주의 조직 소속이다. 터틀 아일랜드는 거대한 거북이의 등에 이 땅덩어리가 형성되었다는 다양한 원주민 창조 신화에서 유래된 표현으로, 탈식민주의 맥락에서 사용된다. 해당 단체의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TILF가 “팔레스타인을 해방시키거나 세상을 불태워버리겠다”고 말했다고 게시되었다. 이들은 미국을 제국주의로 규정하며, 미국으로부터 세계를 해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들을, 공모 혐의와 파괴 장치 소지 혐의 포함 여러 혐의로 고소했다. 용의자들은 새해 전야부터 새해 벽두에 기업 물류 시설들,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과 차량을 대상으로 연쇄 폭탄 테러를 감행하기 위해 상세한 계획을 세웠다. 수사국은, 용의자 4명이 캘리포니아 사막 도시 트웨나나인 팜스 인근에서 체포됐다고 전했다. 에사일리 검사는 용의자는 모두 로스앤젤레스 지역 출신이며, 용의자 중 한 명은 새해 전야에 남가주 전역의 최소 5곳 이상을 폭파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계획에는 사제 폭발물을 제작하는 단계별 지침이 포함돼 있었고, 오

렌지카운티와 로스앤젤레스 전역의 여러 표적이 열거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원 문서에 첨부된 증거 사진에는 사막 야영지 모습이 담겨 있으며, 수사 당국은 플라스틱 접이식 테이블 위에 폭탄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들이 흩어져 있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용의자들은 다양한 크기의 PVC 파이프, 질산칼륨으로 추정되는 물질, 숯과 숯 가루, 황 가루, 도화선으로 사용될 재료 등 폭탄 제작 부품을 모두 야영지로 가져왔다”고 적시돼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용의자는 오드리 일린 캐럴(30세), 재커리 애런 페이지(32세), 단테 개필드(24세), 티나 라이(41세)이다. 지난 11월, 용의자 중 한 명인, 캐럴은



미 연방정부 담당자가 용의자들 체포 당시 상황을 전파하고 있다. ©현지 영상 캡처

비밀 정보원에게 “미드나잇 선 작전”이라는 제목의 8페이지 분량의 폭탄 테러 계획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캐럴과 페이지는 그 후 다른 사람들을 모집했다. 미 연방수사국은 또한, 같은 극단주의 단체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뉴올리언스에서 체포됐다고 밝혔다. 김민선 기자

## 2025 샌안토니오 ‘예수 찬양제’ 성황리 개최

샌안토니오 지역 한인 교회들이 함께하는 2025 샌안토니오 예수 찬양제(United Christmas Festival of Praise)가 12월 14일(주일) 오후 6시, 샌안토니오 글로벌한인감리교회(담임목사 배 혁)에서 은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예수 찬양제는 샌안토니오 교회협의회 주최로 열렸으며, 제일한인장로교회, 한인침례교회, 한인글로벌감리교회, 새누리교회, 한마음침례교회, 순복음사랑의교회, 겨자씨감리교회, 형제침례교회, 임마누엘나사렛교회, 한인은혜침례교회, 기쁨의장로교회, 헬로삼커뮤니티교회 등 지역 여러 교회들이 연합해 성탄의 기쁨을 나눴다. 예배는 백영진 목사(샌안토니오 교회협의회 총무, 기쁨의 교회의 사목)로 진행됐다. 한인글로벌감리교회 찬양팀의 찬양과 함께 여는 기도가 드려진 후, 성



예수 찬양제 현장의 모습. ©주최 측 제공

도들은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를 찬양하며 성탄의 기쁨을 고백했다. 대표기도는 이윤영 목사(한인침례교회)가 맡았으며, 성경 봉독은 최은택 목사(헬로삼커뮤니티교회)가 누가복음 2장 10~11절과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봉독했다.

이아 정종례 권사(한인글로벌감리교회)의 지휘와 하옥주 사모의 반주로 연합 성가대가 ‘성탄 송가’와 ‘영화롭도다’를 찬양해 깊은 감동을 전했다. 이날 설교는 장성진 목사(순복음 사랑의교회)가 “소개시켜 드릴 분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장 목사는 “성

탄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소개받는 시간”이라며, “예수 찬양제를 통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증인의 삶을 살 것을 권면했다. 현금 시간에는 찬송 ‘저 들 밖에 한밤 중에’가 불려졌으며, 조유진 목사(한인은혜침례교회)가 부른 기도를 드렸다. 이어 제일한인장로교회 남성중창단이 특송 ‘사랑의 왕’을 찬양했고, 교회협의회 소속 목회자 부부들이 함께 ‘축복의 찬양’,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을 불러 연합과 축복의 의미를 더했다. 광고는 문영일 목사(임마누엘나사렛교회)가 전했다. 폐회 찬송으로는 ‘천사 찬송하거라’가 불려졌다. 예배는 정신찬 목사(제일한인장로교회)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조셉 리 기자

## 플로리다주, “미성년자 성전환 시술로 대중 기만”… 의료 단체 3곳 제소

제임스 유스마이어(James Uthmeier)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이 미성년자 성전환 시술과 관련해 대중을 호도했다는 혐의의 3개 전문 의료 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0일(화) 세인트 루시 카운티 순회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피고는 세계트랜스젠더보건전문가협회(WPATH), 내분비학회(Endocrine Society), 미국소아과학회(AAP) 등 세 곳입니다. 유스마이어 장관은 이들 단체가 “아이들의 불안한 심리에 맞춰 신체를 돌이킬 수 없도록 변형시키는 ‘치료’ 지침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소장은 피고들이 말하는 소위 ‘성별 긍정 치료(gender-affirming care)’의 과정이 묘사되어 있다. 이 과정은 사춘기 단계로 시작해 이성 호르몬 투여로 진행되며, 결국에는 미성년자의 가슴과 생식기를 절제하는 외과 수술로 이어진다. 검찰 측은 소장에서 “피고들에게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바로 이러한 성적 개입이 소아 성별 불쾌감을 실제로 완화해 준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환자와 보험사, 규제 당국, 심지어 판사들까지 설득하기 위해 조직적인 캠페인을 벌여 이러한 시술을 권장하는 ‘임상 지침을 만들어냈다. 법무장관실은 이어 “이들 단체는 가짜 정당성을 쌓아 올렸다”고 주장했다. “2024년 들어 내부 자료 유출, 소송 과정에서의 증거 공개, 국가 보건 기관들의 체

계적 검토 등을 통해 이들의 ‘둘러막기식’ 지침이 정교한 사기극임이 드러났고, 결국 그들이 쌓은 모래성은 무너져 내렸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장은 이들의 행위가 매우 “비도덕적”이라 비난하며, 의학적 효능도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이들의 신체를 훼손하고 화학적으로 변형시키는 값비싼 수술과 약물을 팔도록 도왔다고 했다. 주 검찰은 이들 세 단체가 ‘플로리다주 기만 및 불공정 거래 관행법’과 ‘플로리다주 조직범죄처벌법(RICO Act)’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유스마이어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들 단체는 어린이 대상 ‘성별 긍정 치료’를 홍보하면서 그 위험성과 한계, 증거 부족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수년간 이들은 자신들의 권고가 확립된 과학인 것처럼 주장했지만, 정작 밀실에서는 그 증거가 빈약하고 결과가 불확실하며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세계트랜스젠더보건전문가협회 측은 UPI 통신에 “우리는 전 세계 트랜스젠더들이 온전하고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신중하고 증거에 기반한 치료 지침을 발전시키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현재 미국 내 26개 주와 1개 자치령이 어린이에 대한 ‘사춘기 차단제 처방’ 및 ‘신체 변형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고 있다. 애리조나주는 수술적 개입만 금지하고 있다. 김민선 기자

## 나침반교회 민경엽 목사 원로목사 추대 및 이종천 담임목사 취임 예배

‘모이는 교회 흠어지는 교회’를 모토로 하는 나침반교회가 오는 28일 민경엽 원로목사 추대 및 담임목사 취임 예배를 드린다. 민경엽 목사는 남가주 사랑의교회에서 사역할 당시 고 오세준 목사를 만나 우정을 쌓았다. 이후 1999년 오 목사가 나침반교회가 설립했으나, 창립예배 후 1년도 되지 못해 병으로 하나님의 부름

을 받게 되어, 그를 이어 나침반교회를 지난 27년간 섬겼다. 고인이 살아 있을 당시, 교회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를 함께 논의했다는 민 목사는, 어느날 고인이 “나침반교회”라는 이름을 전했을 때, 깜짝 놀랐다. 그 이유는, 민 목사가 청년 시절 근무했던 기독교 출판사가 <종합선교 나침반>였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민 목사는 오렌지카운티

기독교교회협의회 제22대 회장으로 섬겼으며, 국가기도의 날, 다민족연합기도대회 등을 섬기며 교회 연합 사역 및 한인 사회를 위해 힘을 보탰다. 담임목사로 취임하는 이종천 목사는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과 아세아연합 신학대학원(Th.M.),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D.Min)에서 수학했으며, 코로



나의 뉴스교회(Newsong church)를 섬겼다. 김민선 기자

# “어떻게 시를 쓸 것인가?”

시인 소강석의 체험적이고 실제적인 시 창작 안내서

운동주문학상, 천상병귀천문학대상, 황순원문학상 등을 수상한 소강석 시인의 체험적이고 독창적인 시 창작론이 담긴 이 책은 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한 이들에게 분명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이 책은 시 쓰기를 위한 영혼의 지침서다. 소강석 목사님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의 비밀을 찾아낸 영성적 탐구서다. 열세 권의 시집을 출간한 소강석 시인의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한 자전적 시의 안내서다.” \_ 정호승(시인)

“종교적 상상력과 시적 감수성의 양자를 거칠듯처럼 한꺼번에 포괄하고 있는, 체험적이고 실증적이며 그로 인해 감명 깊은 시 창작 방법론의 범례가 바로 여기에 있다.” \_ 김종회(문학평론가)



영혼을 담은 시 쓰기

소강석 지음·216쪽·17,000원

샘터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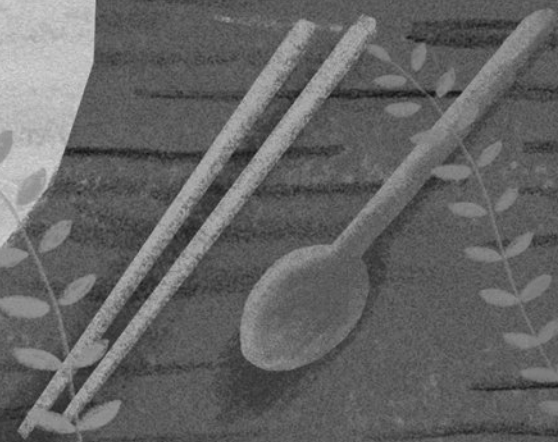
# 아침밥이 보약! 아침부터 활약!

오늘,  
아침밥 챙기셨나요?

아침밥의 힘은  
몸이 먼저 알기에

단지 하루의 건강이 아니라  
평생의 건강이 되도록

농협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 ‘온라인 차별금지법’ 논란됐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주도의 법안 의결에 반대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빈 자리가 남아 있다. ©뉴스시스

## 방송법 개정안에선 ‘성평등·성다양성 존중’ 문구 삭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최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온라인상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한 걸음 더 진전됐다. 이번 개정안은 언론사나 개인이 악의적 목적을 갖고 사실과 다른 정보를 유포하다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이미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

날 법사위에서도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온라인 통제 법안”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하고 표결에 앞서 회의장을 떠났다. 이번 개정안에 법원의 판단을 통해 불법 정보로 규정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포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

언론계는 권력자가 언론사를 상대로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황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법안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대신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신속히 각하할 수 있도록 ‘전략적 불소송 방지 특칙’이 마련됐다. 또한 진평연과 동반연 등 시민사회가 지적해온 ‘인터넷에서의 차별금지법적 요소’ 논란과 관련해, 불법 정보 범위에 대한 조항 일부가 수정됐다. 기존 문구 끝에 포함돼 논란이 됐던 ‘등이 삭제되면서,

동성에 비판 의견까지 불법 정보로 간주될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정안은 22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여당 의석수가 우세해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최종 표결은 본회의 상정 이후 하루가 지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같은 날 법사위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 심의 기준에서는 ‘성평등·성다양성 존중’ 문구가 삭제되고 기존의 ‘양성평등’ 표현이 유지됐다. 노형구 기자

## 온신학회, ‘온신학적 천년왕국론’과 ‘사후세계’ 논의 조망

### 제9차 연구위원회 연구모임서 최태영·임순숙 박사 발제

온신학회(회장 최태영)가 최근 서울 광성교회에서 제9차 연구위원회 연구모임을 가졌다. 이날 ▲최태영 박사(온신학회 회장, 교회신학연구소 소장)가 ‘온신학적 천년왕국론’ ▲임순숙 박사(장산대)가 ‘브루스 그레이슨이 말하는 사후세계’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 ◆ 천년왕국론에 대한 일반적 이해와 신학적 범주

최태영 박사는 “천년왕국에 대한 대표적인 견해로 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무천년설이 존재한다”며 “이 가운데 개혁신교의 주된 견해는 무천년설”이라고 했다.

이어 “이 같은 설명에 대해 한국의 다수 장로교 성도들은 의아함을 느낄 수 있다. 한국교회 현실에서 장로교 신자 상당수는 전천년설을 장로교의 공식 교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는 이러한 인식이 형성된 배경으로, 그동안 한국 장로교회의 다수 목회자가 천년왕국에 관한 장로교 전통을 충분히 가르치거나 계승하지 못한 점을 들었다.

#### ◆ 천년왕국론을 보완하는 온신학적 천년왕국론

그는 “한국교회의 종말론, 특히 천년왕국에 관한 이해는 박형룡 박사의 신학적 영향 아래 전천년설이 폭넓게 지지를 받아온 흐름이 있었다”며 “그러나 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모두 각 이론이 전제하는 성경 해석과 신학적 구조 안에서 지지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했다.

이어 “천년왕국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견해로 무천년설을 제시하며, 그중에서도 ‘하늘에서 실현되는 천년왕국설’이 성경

본문에 가장 충실하다”며 “다만, 이 견해 역시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 교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온신학회에서는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 교리를 집중적으로 다뤘으며, 이를 천년왕국론에 적용할 경우 보다 온전한 교리적 체계가 형성될 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개념이 바로 ‘온신학적 천년왕국론’이라고 했다.

최 박사는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서 ‘이는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는 대목 역시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며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을 하는 존재는 영혼만이 아니라, 첫째 부활을 경험한 성도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온신학적 천년왕국론이 후크마가 제시한 ‘하늘에서 실현되는 천년왕국론’을 계승하되, 그 주체를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라 ‘죽을 때 부활한 사람’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신학적 진전을 이룬다”고 했다.

#### ◆ ‘왕 노릇’의 의미에 대한 재해석

그는 “무천년설 또는 하늘에서 실현되는 천년왕국설에 대해 제기되는 대표적인 질문은 ‘왕 노릇을 한다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점’이라며 “전천년설은 부활한 성도가 땅에서 죄인들을 다스린다고 주장하는 반면, 무천년설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기 때문에 다스림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 박사는 요한계시록 기자가 다스림의 대상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의 관심은 다스림의 대



최태영 박사(오른쪽)가 발제를 하고 있다. ©온신학회

상이 아니라, 성도가 왕과 같은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스림은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왕 노릇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오히려 부활한 성도들이 땅에서 죄인들을 다스린다는 전천년설의 주장이 신학적·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 온신학적 천년왕국론의 세 가지 핵심

최 박사는 “온신학적 천년왕국론의 핵심 주장은 첫째, 천년왕국은 지상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이다. 둘째,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이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누린다는 것이며, 셋째로 천 년은 문자적으로 천 년이라는 기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곧 교회 시대를 가리킨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온신학적 천년왕국론은 개혁교회가 전통적으로 견지해 온 무천년설의 범주 안에 속하면서도, 기존 무천년설이 지니고 있던 약점을 보완한 교리로 평가된다”며 “특히 죽음 이후의 부활 교리를 포괄함으로써 요한계시록 20장의 본문을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온전하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온신학적 천년왕국론이 공교회의 교리로 수용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고 전했다.

#### ◆ 무신론적 가정에서 성장한 브루스 그레이슨

임순숙 박사는 “2021년에 발간된 브루스 그레이슨의 저서 ‘에프터 라이프’를 중심으로, 현대 과학과 기독교 신학의 사후세계 논의가 새롭게 조명될 필요가 있다”며 “‘에프터 라이프’는 약 1,000여 명에 이르는 임사체험자를 대상으로 40년에 걸쳐 진행된 연구 결과를 집대성한 책이다. 그레이슨은 버지니아대학교 정신과 명예교수로 재직했으며, 미국정신과학회 석학 회원으로 등록된 인물로서 정통 신경과학자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레이슨은 매우 엄격한 무신론적 가정에서 성장했으며, 그의 학문적 훈련과 연구 역시 전적으로 무신론적 전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며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랜 기간 임사체험 사례를 연구하면서, 죽음 이후에도 의식이 지속될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검토하게 됐다”고 했다.

임 박사는 “성경에 근거할 때 사후세계의 존재는 분명하다”며 “그러나 무신론

적 과학이 지배적인 오늘날의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죽음 이후 천국이나 지옥과 같은 사후세계에 대해 말하는 것은 성경 속에만 등장하는 오래된 이야기로 치부되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설명했다.

#### ◆ 일원론으로 이동한 현대 기독교 신학

그는 “많은 기독교 신학이 과학과의 대화 속에서 보다 진보적인 신학으로 나아가기 위해, 전통적인 이원론적 성경 세계관을 벗어나 일원론적 세계관과 인간관을 신학의 토대로 삼아 왔다”며 “이는 기독교 신학이 물질주의적 과학과의 대화 과정에서, 과학이 제시하는 설명을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이원론적 전제에서 물러나 일원론적 전제로 이동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 “학문 간 대화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기독교 신학이 자신만의 독자적이고 특수한 이론의 타당성과 설득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보다, 무신론적 과학을 포함한 타 학문의 내용을 수용하는 태도를 취해 왔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최근 과학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이원론적 세계관을 지지하는 방향의 새로운 과학적 발견들이 속속 등장하

고 있다”며 “브루스 그레이슨과 같은 연구자들의 발견이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했다.

#### ◆ 현재 기독교 신학, 세계관 재검토 필요

임 박사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지시하는 과학적 발견들이 축적되고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 기독교 신학 역시 이를 면밀히 검토할 시점에 이르렀다”며 “현재 기독교 신학이 채택하고 있는 일원론적 세계관이 과연 정당한지, 다시 돌아보고 재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레이슨 교수가 정신이 단순한 뇌의 작동이 아님을 밝혀내려 한 이유는, 사후 의식과 사후세계의 존재 가능성을 말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며 “책의 제목이 ‘에프터 라이프’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레이슨의 연구가 책 전반에서 다소 애매모호하거나 한발 물러선 결론을 제시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신론적 배경을 지닌 신경과학자가 사후세계의 존재 가능성을 신경과학적으로 진지하게 고려하고, 죽음 이후에도 의식이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신학적 가치는 크다”고 평가했다. 장지동 기자

안심과 안정을 드리는 행복수호천사 K-COMWEL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행복큐브

행복공식

노동보험으로 일터안심 + 근로복지서비스로 생활안정

Comfort U & Be Easy

근로복지공단

일터 안심

산재보험  
재해보상  
재활치료

고용보험  
보험가입  
피보험자 관리

안정

가계 노후 안정  
퇴직연금 기금  
임금채권 보장

복지증진  
생활안정자금 대부  
여가문화, 직장어린이집

안심

안정

행복



#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배우는 7가지 영원한 신앙의 진리는?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마크 크리치 목사(사진)의 기고글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관한 놀라운 사실 7가지(7 amazing facts about Mary, the mother of Jesus)'를 최근 게재했다.

마크 H. 크리치 목사(Rev. Mark H. Creech)는 노스캐롤라이나 기독교행동연맹(Christian Action League of North Carolina, Inc.)의 사무총장이다. 그는 20년 동안 목회자로 사역했으며,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다섯 곳의 남침례교회와 뉴욕주 북부에서 한 곳의 독립침례교회를 섬겼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는 오늘날 복잡한 위치에 놓여 있다. 일부 기독교 전통, 특히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경이 지지하는 범위를 넘어 마리아를 지나치게 높이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개신교는 종종 반대편으로 너무 멀리 나아간다. 마리아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그녀가 보여준 놀라운 믿음과 용기에 대해 깊이 묵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더해 세속 문화와 대중문화는 마리아를 계절 장식물이나 감상적인 상징, 혹은 신학적 무게가 제거된 도상(icon)으로 축소해 버린다.

그러나 성경은 훨씬 더 풍성한 초상을 제시한다. 마리아는 구약 장면 속에 놓인 연약한 인형이 아니었다. 그녀는 하나님의 계시가 지닌 압도적인 빛과 책임 앞에 깨어난 실제의 젊은 여인이었다.

마리아는 과장된 숭배도, 무심한 방치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녀의 삶은 신

중한 성찰의 대상이 된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비와 중단, 그리고 겸손한 믿음을 통해 어떻게 자신의 종들을 빚어 가시는지를 보게 된다. 마리아의 삶에서 오늘의 교회에도 여전히 또렷하게 말하는 7가지 영원한 진리가 드러난다.

**1. 하나님의 목적은 삶을 뒤엎을 수 있으나, 올바른 반응은 순종이다**

마리아는 평범한 유대인 처녀가 기대할 법한 삶을 생각하며 살았을 것이다. 약혼, 결혼, 나사렛의 가정, 그리고 조용한 마을의 일상 말이다. 그러나 그녀의 부르심에는 평범함이 허락되지 않았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난 순간부터 그녀의 미래는 모든 기대를 뒤엎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휩쓸려 들어갔다. 그녀는 결혼 전에 성령으로,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게 되었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스캔들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야 했다. 그녀가 상상하던 삶은 완전히 사라졌지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유일하게 옳은 응답이었다.

그 혼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가족의 보호 속에서 아이를 낳는 대신, 베들레헴으로 이동해 낄새나고 더러운 마구간에서 아들을 출산해야 했다. 평온한 가정생활 대신 난민처럼 애굽으로 피신해야 했다. 일상의 안정 대신, 예언적 신비의 무거운 짐을 품고 살아야 했다. 마리아는 어머니로서의 기대를 하나님의 더 높은 뜻에 맡겨야 했다. 골고다에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성의 고통을 마주했다. 그러나 그녀가 알지 못한 사이, 그 고통은 인류 구원의 중심에 놓여 있었다.

때때로 그녀가 평범한 삶을 그리워했을 모습을 상상하기란 어렵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종종 희생이라

는 큰 대가를 요구하며, 그녀는 조용하고 흔들림 없는 신뢰로 이를 감당했다.

**2. 하나님은 종종 젊은 이들을 통해, 경험 많은 이들이 불가능하다는 일을 이루신다**

마리아는 아마도 십대였을 것이다. 젊고, 경험이 부족하며, 세상을 이해해 가는 과정에 있던 나이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이어진 약속, 인류의 타락 이후 주어진 가장 오래된 소망을 그녀의 어깨에 맡기셨다. 그녀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메시아를 낳게 될 사람이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녀는 필요한 자격을 거의 갖추지 못했다. 나이도, 영향력도, 교육도, 지위도 없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훨씬 더 귀한 것이 있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믿을 준비가 된 마음이었다.

이 이야기는 영적 성숙이 반드시 연륜으로 측정되지 않음을 상기시킨다. 성경에는 이런 패턴이 가득하다. 사무엘은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지만, 연륜이 많은 엘리는 그 음성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다윗은 형들 사이에서 무시받던 젊은 목동이었으나,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 요시아는 여덟 살에 왕이 되었지만,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진 많은 왕들보다 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섰다.

세월이 저절로 영적 지혜를 만들어 주지는 않으며, 젊음이 반드시 결격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다. 마리아는 삶에 찌든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가능성을 아직 의심하지 않는 신뢰로 천사의 말을 받아들였다.

**3.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평생의 오해와 의심을 불러올 수 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난 순간부터 마리아는 순종의 대가를 알고 있었다. 결혼전의 처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은 수군거림과 의심, 뒤에서 오가는 말들을 불러올 것이 분명했다.

천사는 쉬운 길을 약속하지 않았다. 단지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눅 1:38)라고 응답했다. 그녀는 이웃들의 눈에서 자신의 명성이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하늘은 진실을 알고 있었다. 천사의 선언, 요셉의 꿈, 엘리사벳의 성령 충만한 축복, 시므온의 예언, 그리고 구속사의 전개 속에서 하나님은 마리아를 확증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끈질기게 자신이 아는 진리를 붙들어야 했다. 자신의 가치는 추측과 험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강하게 하시며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었다.

마리아의 삶은 중요한 진리를 가르친다. 순종은 명성을 앗아갈 수 있지만, 우리의 가치를 빼앗아지는 않는다.

**4. 하나님은 신비와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된 이들에게 가장 큰 비밀을 맡기신다**

마리아는 세상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신비를 품고 살았다. 태중에서 자라고 있던 성육신의 신비, 아들에 대해 선포된 예언의 말씀들, 어린 시절부터 목격한 역설들 말이다. 누가는 그녀가 이 일들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였다”(눅 21:9)고 두 번이나 기록한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모든 것을 이해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다. 믿음으로 품고 기다리라고 하셨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처럼 말이다: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식으로 그의 기이한 일을 이루시며 바다 위에 그의 발자취를 두시고 폭풍 위를 달리신다.” 성경 전체가 이 패턴으로 가득하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을 수십 년 기다렸고, 요셉은 노예와 감옥의 어둠 속에서 꿈을 품었다. 다니엘은 봉인하라는 계시를 받았고, 사도들조차 부활 이후에야 예수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했다.

홀로코스트 수용소에 갇혔던 코리 텐봄의 이야기는 이를 잘 보여준다. 그녀의 아버지는 “가차표는 가차를 탈 때 주지 않느냐,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말했다.

마리아도 그렇게 살았다. 답을 요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길이 틀리다고 항의하지 않았다. 빛이 비칠 때까지 신비를 품었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일들은 종종 지나고 나서야, 때로는 영원에 들어가서야 이해된다.

**5. 하나님은 모든 답을 알기 전에 예비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마리아의 마그나피카트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 가운데 하나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찬양한 시점이다.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 예언이 성취되기 전, 명성이 회복되기 전, 그리고 고난의 길을 알기 전이었다.

그녀의 예배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에서 나왔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마리아는 성경을 알고 있었다. 두루마리를 소유하지는 못했지만, 말씀은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다. 잠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잠긴 마음에서 나온다. 오늘날에 살았다면, 마리아는 분명

성경을 펼쳐 들고 주일마다 주님의 집에 있었을 것이다.

**6. 하나님은 신실한 종들에게 구속 역사의 전개를 직접 보게 하신다**

마리아의 삶은 역사의 두 위대한 순간을 잇는다. 베들레헴에서 구주를 품었고,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과 교회의 탄생을 목격했다(행 1:4). 구유에서 시작된 구원은 열방으로 확장되었다. 개인적 차원과 세계적 차원에서 구속이 펼쳐지는 것을 봤다. 마리아는 순간의 순종뿐 아니라, 끝까지 신실하게 걷는 삶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지 보여준다.

**7.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에게만 드러난다**

마리아는 독특한 진리를 알고 살았다. 자신이 젖 먹이고 가르친 아들이 곧 자신의 구주라는 사실이다. 그녀는 별을 지은 손을 만졌고, 세상의 죄를 지실 분을 품에 안았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삶은 경외와 기쁨, 평안을 가져온다. 마리아의 본은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한다.

세월이 흘러도 이 진리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무너진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오해 속에서도 은혜로 견디고, 신비를 품고, 답이 오기 전에 예비하며, 끝까지 그리스도와 동행하라는 부르심이다. 마리아는 자신을 가리키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킨다.

그녀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란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누가복음 1:38)

최승연 기자

## 대림절, 예수의 방식으로 적을 대하다

美크리스천데일리인 터너셔널(CDI)은 조 프로스트(사진)의 기고글인 '우리는 예수님의 방식으로 원수들과 맞서야 한다'(We must engage enemies Jesus' way)'를 최근 게재했다. 조 프로스트는 영국 복음주의 연합의 커뮤니케이션 및 참여 담당 이사, 커뮤니케이션, 멤버십 및 미션 팀을 이끌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올해에는 '적'에 대한 이야기가 유난히 많았다. 특히 국가 대 국가의 대립, 정치적 적대 관계, 정당과 정치인, 나아가 공

동체 간의 갈등이라는 맥락에서 그러하다. 정치적·문화적·사회적 스펙트럼의 어느 편에 서 있든, 우리는 늘 함께하는 이들이 있고, 반대로 맞서야 할 이들이 있다는 인식을 강요받는다. 우리는 끊임없이 누가 우리의 적인지 규정하고, 그들에 맞서 일어선다는 요구를 받는다. 적을 미워해야 한다는 말, 싸워야 한다는 말, 방어해야 하고 결국은 적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말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반응은 위협을 느끼거나 위협에 처했다고 여길 때 나타나는 매우 인간적인 반응이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문제 해결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듯하

다. 오히려 필자는 이러한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들이 우리의 관계와 사회를 점점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필자는 이런 순간들을 맞이할 때마다 익숙한 방식의 반응을 반복하기보다, 한 걸음 물러나 멈추어 서서 조용히 성경 앞으로 나아가려 한다. 주변의 목소리나 개인적인 관점, 혹은 당장의 상황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다시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이 시기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그분의 오심과 관련된 핵심적인 성경 본문들을 깊이 묵상하는 때이다. 이사

야 9장 6절에서 우리는 메시아의 이름들을 읽는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될 때, 그것은 대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이사야 9장 6절은 예수께서 그렇게 불릴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림절과 관련해 또 하나 중요한 구절이 있다. 이사야 64장 1절부터 9절은 메시아의 오심의 성격을 말하며, 특히 2절에서 이사야는 예수께서 “주의 이름을 주의 원수들에게 알리기 위해 내려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다. 다시 말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예수님의 본성

이 바로 그분의 원수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방식이라는 뜻이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자신의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본질이 화해와 회복, 그리고 평화로 향해 있음을 알리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원수들에게조차 그분이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시켜 주신다. 원수들에게 위로와 조연을 약속하시고, 우정과 소망의 손을 내미신다.

그렇다면 이번 대림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본성과 성품을 우리의 원수들에게 알린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깊은 의견 차이로 갈라진 이들이 복음의 화해의 메시지를 마주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필자가 염려하거나 걱정하고 있는 사건, 연설, 정치 지도자, 혹은 공동체의 상황은 무엇인가? 그 사람이나 그 상황 위

에 평화와 화해, 심지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위해 기도해보는 것은 어떻게? 아직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그 관계 속에서 평강의 왕이 드러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이번 대림절에 필자는 세상이 적을 대하는 방식으로 적을 대하고 싶지 않다. 두려움이나 미움 속에 머물고 싶지도 않다. 대신, 평화 가운데 오셨고 장차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메시아, 분열된 세상에 우정과 화해를 제안하시는 그분을 기억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번 대림절에, 필자는 나의 원수들 또한 예수의 이름 위에 놓인 소망과 약속, 그리고 자유를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시다.

최승연 기자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대한민국 희망을 캠 '캠코'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태로운 가계의 기회를

• 개인연세저금 해임펀드  
• 소상공인 자영업자 세출발기금

침재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 유류 저형용 국유재산 관리  
• 노후 국 공유재산 개발 • OnBid (온비드)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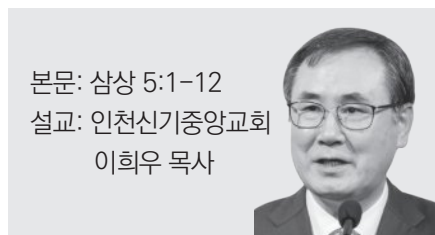
• 기업구조조정펀드 • 중소기업  
• 기업구조조정지원센터(돈기업)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 사무엘서 6. ‘뿔짓에는 은혜 없다’



1981년의 미국 영화 『레이더스』(Raiders)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세계 영화계를 신성한 충격에 빠뜨린 스티븐 스필버그(Steven Spielberg) 감독의 인디아나 존스(Indiana Jones) 시리즈 중 첫 작품이다. 영화제목 ‘레이더스’는 원래 ‘침략자들’이라는 뜻이지만, 영화 포스터의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아서’(Raiders of the Lost Ark)라는 제목처럼 언약궤를 찾아 나선 모험 판타지였다. 해리스 포드라는 최고의 명배우가 주연을 맡았고, 이 영화는 우리나라 TV에서도 여러 번 방영된 바 있다.

지성소에 있던 언약궤(Ark of the Covenant)는 바벨론에 망할 때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고, 고고학 교수인 인디아나 존스 박사가 그 언약궤를 찾아 나선 것인데,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언약궤를 추적하던 독일군이 법궤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모래뿐이고, 거기서 무서운 천사들이 쏟아져 나와 이 신성한 궤를 지켜 보던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장면이다.

이 영화에서 천사들이 궤를 지키듯이 본문에도 언약궤의 움직임에 따라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다. 그 손이 노획(擧獲)한 언약궤를 갖다둔 블레셋의 도시마다 재앙이 임한다는 말씀이 사무엘상 5장, 이 장의 중심 단어는 ‘여호와와 궤, 즉 언약궤다. 12절밖에 안 되는 짧은 장에 12번이나 나오는 이 단어는 4장부터 6장까지 세 장의 중심 단어이기도 하다. 이 언약궤와 관련한 블레셋의 입장을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 좋겠다.

## ◆언약궤를 노획하다

두 번의 전쟁에서 일방적 승리를 거두며 언약궤까지 노획한 블레셋은 해양 민족으로서 일찍부터 철기로 만든 무기로 무장한 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다(삼상 13:20, 21, 17:5-7).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엄청난 인명피해를 당하고 언약궤를 노획물로 빼앗겼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 은혜 상실의 원인이었지만 블레셋은 자신들의 강한 군사력과 다곤 신 때문에 승리한 것으로 착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언약궤를 그들의 수도인 아스돗 다곤 신전, 그것도 이스라엘의 신을 굴복시켰다는 승자의식(勝者儀式)으로 다곤 신상 바로 곁에 둔다. 마치 언약궤를 다곤 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희생물로 드린 모양새, 하나님을 포로로 결박하고 조롱하는 꼴이다. 물론 언약궤를 다곤 신상 곁에 둔 것은 신(神)은 망을수록 좋다는 생각이었을 수도 있지만 이젠 뿔짓이었다.

여하튼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범신론자(pantheist)들, 하나님을 그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여긴다. 흔히 사람들은 모르고 한 행동은 ‘실수’라고 여기지만 아니다. 언약궤를 노획하고 조롱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큰 죄악이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끔찍했다. 다곤 신상이 무너져 파괴된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와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3절). 얼굴이 땅에 닿은 것은 복종의 자세, 다곤이 하나님께 굴복한 모양새다.

블레셋 사람들은 ‘우연한 사고’로 여겼다. 그래서 다곤을 다시 일으켜 그 자리에 세운다. 하지만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와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통이만 남았더라”(4절). 이번에는 머리와 두 손목도 끊어졌다. 박살 난 셈이다. 신상의 머리가 잘렸다는 것은 생각이 없는 신이라는 뜻이고, 두 손이 잘렸다는 것은 다곤이 무기력한 우상일 뿐이라는 뜻이다.

블레셋의 오판을 보며 우리를 돌아본다. 우리도 오판하고 합부로 행동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또 죄를 범하고도 실수로 여기고, 누구나 그럴 수 있다며 가볍게 여기는 경우도 많다. 조심해야 한다. 블레셋처럼 혹독한 대가를 치른 후에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 뿔짓에는 은혜가 없기 때문이다. 뿔짓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뒤늦게 후회한 블레셋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 ◆여호와와 손이 때렸다

사무엘상 5장의 또 하나의 중심 단어는 ‘여호와와 손’이다. 4번 나오는데 그 손이 ‘엄중하다’고 했다. 그래서 그 손이 언약궤를 따라가며 언약궤를 두는 지역마다 초토화시킨다.

여호와와 손이 언약궤 옆의 다곤 신상을 친 것은 물론 아스돗 전역을 독중(emeroods)으로 쳤다. “여호와와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6절). 다곤 신상을 섬기는 지역의 주민들까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뜻이다. 성경은 여호와와 손이 “때렸다”(smote)고 했다. 징벌하였다는 말이다.

당황한 블레셋 사람들은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해 언약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기기로 결의한다. 가드에는 다곤 신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결의했지만 그 또한 뿔짓이었다. 이스라엘의 신이 다곤 신상으로 인해 진노한 것으로만 여긴 것

은 아직도 자기들이 뿔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어리석음이며, 언약궤를 노획물로 삼아 승리를 즐기고 싶어 하는 미련일 뿐이다.

여호와와 손은 가드에서도 움직인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와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9절). 언약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겨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자 했던 블레셋 방백들의 노력은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불러오고 말았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면하고 해결해 보려는 시도는 그저 어리석고 무모한 것이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블레셋 방백들은 이번에는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보내기로 결정한다. 언약궤가 에그론으로 옮겨지자 에그론도 쑥대밭이 되었다. 그때 에그론 사람들의 반응이다.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10절).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는 것이다.

그렇다. 인간의 생사화복(生死禍福)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블레셋 사람들을 보라. 뿔짓하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

고, 남은 자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낀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운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뿔짓에는 은혜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뿔짓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야 한다. 블레셋 도처에 비상이 걸렸듯이 지구촌은 지금 비상 상황이다. 몇 년 전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지구촌은 지금 곳곳에서 기후 재앙(氣候災殃)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공포를 느낀다. 지구학자들은 코로나19가 두려운 수준이었다면 기후변화(氣候變化)는 인류 멸절 수준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단순한 경고가 아니다. 물 폭탄과 폭설, 그리고 폭염 등 역대급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지진도 끔찍한 수준으로 계속되며 지구의 심술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기후학자들은 앞으로의 세계는 기후변화로 인해 지금 이 그리울 것이라고 한다. 마지막 때가 임박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은혜로 재무장해야 한다.

## ◆돌려보내기로 하다

사무엘상 5장의 또 하나의 중심 단어는 ‘보내다’는 것이다. 다곤 신이 박살 나고 지역에 독종 재앙이 임하자 블레셋은 언약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보내고, 가드에서도 독종이 돌자 언약궤를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보냈는데 에그론마저 난리가 나자 블레셋 방백들은 급기야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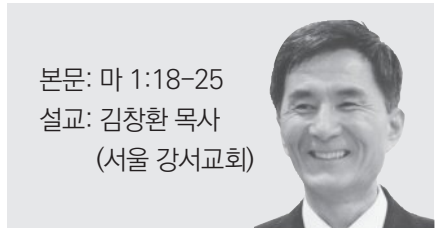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11절).

10절의 “우리과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라는 말씀과 11절 뒷부분의 “은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고 한 말씀, 그리고 12절의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라고 한 말씀을 볼 때 언약궤를 노획한 그들의 뿔짓은 죽음을 부른 끔찍한 죄악이었다.

돌아켜보면 언약궤가 옮겨질 때마다 그곳에 내려지는 심판은 더 강해졌었다. 아스돗과 가드에서는 사람들이 독종 재앙으로 인해 고통만 당했던 것에 비해 에그론에서는 독종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기까지 했다. 언약궤를 블레셋으로 가져온 것이 화근이지만 어찌하든 노획물로 즐겨보려고 언약궤를 가드로 옮기고 에그론으로 또 옮긴 그 고집이 두고두고 후회할만한 뿔짓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이게 블레셋만의 문제일까? 아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어리석기가 다 도긴개긴이다. 블레셋처럼 당해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안 된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이미 늦은 것, 회개만이 살길이다. 그리고 회개는 빠를수록 좋다. 뿔짓에는 은혜가 없음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한다.

##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마 1:18).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 가장 기쁜 사건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역사와 시공 속에 뛰어드신 사건이다. 그러면 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을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 사람은 원래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어 있었으나 사람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동산에서 쫓겨났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화염검으로 지키게 되었다. 결국에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다양한 형태로 점점 더 가까이 오시기 시작하셨다.

## 1. 특정한 사람에게 찾아오셨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자라”(창 12:1-2).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연기 가마 연기 같아 피우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날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

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되라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출 19:17-20). -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에게 ‘두려움과 떨림(경외함)’으로 찾아오셨다.

## 2. 성막(성전)에 찾아오셨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출 40:34).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와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와 영광이 여호와와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와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와 영광이 이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아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이만 이천 마리요 양이 십이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의 낙성식을 행하니라”(대하 7:1-5). - 하나님은 좀 더 가까이 사람들에게 두려움(경외함)으로 찾아오셨다.

## 3. 말씀으로 선지자들의 심령을 통하여 찾아오셨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히 1:1).

“에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결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렘 26:12). -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다.

## 4. 육신을 입고 직접 찾아오셨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아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마 1:21-23).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눅 2:10-11). - 제1의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하므로 멀리 떠나셨던 하나님이 제2의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속죄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었다.

## 5. 성령으로 성도들의 심령 속으로 성전 삼아 찾아오셨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요 14:16-17).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전 3:16). - 성령은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 6. 결론.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아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마 1:21-23).

출생아 증가율 전국 1위

(2024년 1월 ~ 9월 통계)

고마워요

인천광역시

천원주택

i+ 시리즈 신청하기



# 하나님의 법과 가이사의 법(35)

서헌제 박사

한국교회법학회장,  
중앙대 명예교수,  
대학교회 목사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눅 10:36)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한 율법교사는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곁을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뒤 되물으신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비유는 흔히 영적도덕적 교훈으로 들리지만, 사실상 법과 기독교 윤리의 경

계를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질문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이 세상에는 악과 위험이 넘쳐난다. 그로인해 원치 않는 불행에 당한 사람을 마주할 때, 사람들은 묻는다. “똥다가 더 다치게 하면 책임지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법률 상담이 아니다. 이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은 율법교사가 던졌던 질문과 닮아 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책임의 범위를 최소화하려는 질문, 법의 안전지대를 찾으려는 질문이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은 냉혹하지만, 당시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니었다. 돕지 않았다고 정죄받지 않는 것이 곁에기 율법의 구조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법적으로 허용되는 무관심”을 드러내 시며, 이웃 사랑을 법의 경계 밖으로 확장시키신다. 그래서 다시 묻는다. “네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

겠느냐?” 율법의 참 정신인 자기희생 위에 이루어야 할 이웃 사랑을 당시 천대받던 사마리아인을 들어 보여주신 것이다.

이 장면은 오늘날 한국 사회의 법제도 와도 맞닿아 있다. 흔히 구미 각국에는 ‘Good Samaritan Law’, 즉 선의로 응급 구조를 한 사람을 보호하는 법이 있지만 한국에는 없다고 알려져 있다. 엄밀히 말하면 맞는 말이다. 대한민국에는 “누구든지 선의로 남을 도왔다면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포괄적인 선한 사마리아인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응급의료법 등 일부 영역에서 제한적인 면책 규정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똥다가 다치게 하면 정말 처벌받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항상 처벌되지는 않는다.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응급상황에서 비전문가가 선의로 도움을 준 경우, 법

원은 ‘안벽한 처치’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 순간, 그 사람이 보통의 주의로 할 수 있었는지가 기준이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 민사책임의 문턱은 더 낮지만, 실제 판단에서는 응급성, 무상성, 선의, 상황의 급박성이 강하게 고려된다. 법은 완전하지 않지만, 적어도 “똥다가 곧바로 범죄자가 된다”는 통념과는 거리가 멀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 즉 Good Samaritan Law의 내용은 미국과 유럽은 다르다. 미국은 일반 시민에게 구조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자발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에게 폭넓은 면책을 제공한다. “돕고 싶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다. 반면 독일과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자기 위험 없이 가능한 구조조치 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다. 법은 보다 적극적으로 묻는다. “왜 아무것도 하

지 않았는가?”

한국은 일반적 구조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행에 대한 포괄적 면책도 제공하지 않는다. “돕지 않아도 처벌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도왔다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는 가장 소극적인 구조다. 이는 질서를 중시하는 법문화의 선택이지만, 자발적인 이웃 사랑을 제도적으로 복돋우는 데에는 인색하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반복되어 왔다. 응급의료체계가 정비되던 1990년대, 대형 재난과 사고를 겪은 2010년대마다 “사람들은 왜 돕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끝내 일반적인 Good Samaritan Law를 도입하지 않았다. 그 대신 책임의 주체를 보다 명확히 하고, 관라감독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을 택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를 불

편하게 만든다. 사마리아인은 법적 보호를 기대하지 않았고, 위험을 계산하지도 않았다. 그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지만, 이웃이 되기를 선택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단순하고 분명하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는 국가의 압력을 요구하기보다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신 주님을 따르라는 명령이다.

국가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강제할 수 없다. 법은 사랑을 명령하지 못한다. 다만 사랑이 위촉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교회는 법이 하지 못하는 말을 해야 한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를 묻기 전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한다. 하나님의 법은 언제나 가이사의 법보다 한 걸음 앞에 서 있다. 그리고 그 간극이야말로, 교회가 설 자리이다.

## ‘간신히’ 살기에서 ‘충만하게’ 살기

이경애 원장

목회상담전문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는 아마도 ‘구원’일 것이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영혼 구원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왔고, 근래에는 몸과 정신의 구원을 포함하는 ‘전인 구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구원은 죄와 죽음을 주관하며 공중의 권세를 잡은 채 인생들을 향해 악하게 역사하는 세력으로부터 (엡 2:2), 완전하고 안정된 아버지의 나라로 믿음과 삶이 이양되는 것을 의미한다. 기독교인에게 구원받는다는 것,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가장 우선으로 요구되는 기본적인 신앙의 출발점이다.

그런데 이 구원은 단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출되어 생명과 삶이 연장되고 보호받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많은 신학자들이 언급한 소위 말하는 ‘소극적 구원’만으로 기독교의 구원을 설명하는 것은, 구원의 의미를 축소 시킨 것이다. 소극적 구원이란 일반적으로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 죄로부터의 탈출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믿음으로 받는 구원, 이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는 구원, 다

시 말하면 ‘칭의(稱義)’와 유사한 의미인 것이다. 이 구원은 신앙의 출발이지만 심리 치료적 관점에서 은유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마이너스에서 제로에 이르면, 다시 말해서 죽음의 상태를 벗어난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음과 영혼이 얼어붙어 기능할 수 없는 인생들이 심리치료를 통해 얼어붙은 마음이 녹고, 자신을 총체적으로 발견하는 것은 자존감 형성에 필수적인 시작점이다. 인생들에게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하듯이, 심리적 상태가 결핍 상태에서 기본적인 충족 상태에 이르는 것은 성장 과정의 필수적 시작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이러한 소위 소극적 구원에 이르렀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적극적 구원’이 필요하다. ‘성화(聖化)’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 이 적극적 구원은 단지 ‘결핍의 충족’에서 끝나지 않는 ‘성장을 향한 지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은유적 표현을 빌린다면 제로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원받은 존재라는 신분 변화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정성스럽게 행하여 가는 일생의 삶의 과정 말이다. 단지 구원의 은혜에의 자족이 아닌, 적극적 선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향한 주체적 존재로서의 성장 말이다.

우리는 자신의 당면한 문제들 앞에서

이 모든 문제 해결을 원하고 상황의 개선을 간절히 원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성장은 단지 문제 해결이 된 상태만이 아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의 확인, 선한 존재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적극적인 헌신,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는 거룩한 삶의 여정,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다. 그래서 복음사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 아니라 풍성한 영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다(요10장 10절). 간신히 겨우겨우 살기 위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성탄을 기다리는 이 때 여러 외적 내적 상황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영적, 인간적 결핍을 보게 하고 이 때문에 우리는 위축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묵상해 보자. 펍펍한 마음으로 겨우겨우 보내는 행사로서의 성탄절이 아닌, 아기로 오셔서 전 인생을 구원하시고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오실 풍성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말이다. 그리고 이 안에서 나의 인생을 풍성한함으로 기대해 보자. 예수님은 우리가 이러한 기대를 하고 기뻐하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

## 2026년 교회학교 10가지 핵심 키워드

교상범 목사

주일학교사역자연구소 대표



2025년 교회학교 설문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2026년 교회학교는 다음과 같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혁신과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향한 깊은 고민 속에서 교회학교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10가지 핵심 키워드.

1. 교사 리더십 강화
2. 영성 및 소명 재확립
3. 소그룹 중심 사역
4. 관계 중심 공동체
5. 가정 연계 교육
6. 디지털 전환 교육
7.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
8. AI 활용 복음화
9. 교회 리더십 투자
10. 맞춤형 전도 전략

1. 교사 리더십 강화 (Teacher Leadership Empowerment)  
교사들의 사명감, 열정, 영적 성숙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교사 개개인이 학생들의 신앙 성장을 이끌 진정한 리더로

세워져야 한다.

2. 가정 연계 교육 (Family-Connected Education)  
신앙 교육의 핵심 공간인 가정과의 유기적인 연계는 필수다.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자료 제공을 통해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3. 디지털 전환 교육 (Digital Transformation Education)  
온라인 교육 병행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디지털 환경을 활용한 복음 콘텐츠 개발과 하이브리드 교육 모델 구축이 시급하다.

4. 소그룹 중심 사역 (Small Group-Centered Ministry)  
개별적인 돌봄과 친밀감을 제공하는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인 소그룹 모임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교회에 소속감을 느끼고 깊이 있는 신앙 성장을 경험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5. 맞춤형 전도 전략 (Customized Evangelism Strategy)  
인구 감소와 전도 사역 부재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교회 밖 아이들을 향한 새롭고 지속 가능한 전도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한다.

6. 영성 및 소명 재확립 (Re-establishing Spirituality & Vocation)  
영성 및 소명 재확립

교사들의 소명 의식과 영성을 재충전하는 훈련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기적인 기도회와 영성 교육을 통해 교사들이 번아웃 없이 헌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7.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 (Innovative Educational Content)  
딱딱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미디어, 게임화, 토론 등 학생들의 눈높이와 흥미를 충족시키는 참여형, 경험형 교육 콘텐츠로 전환하는 혁신이 필요하다.

8. 교회 리더십 투자 (Church Leadership Investment)  
교회학교에 대한 재정, 시설, 인력, 훈련 지원 등 교회 리더십의 획기적인 투자와 관심이 절실하다. 교사들의 강한 비전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9. AI 활용 복음화 (AI-Utilized Evangelism)  
AI는 단순히 세속적인 기술이 아니라 복음을 전달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교육자료 제작, 콘텐츠 아이디어 발굴 등 AI를 복음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10. 관계 중심 공동체 (Relationship-Centered Community)  
교회학교가 학생들이 환대받고 안전하며 소속감을 느끼는 관계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교사-학생, 학생-학생 간의 건강한 관계 형성을 통해 지속적인 참여와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

Your True ESG Partner

##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등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꽃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목사, 전도사 후보생  
신·편입생 모집**  
<수시모집>

◎ 최고의 교수진 (정규 박사학위 소유자 강의)  
◎ 본교 교수의 수준 높은 강의  
◎ 전 과정 철저한 본교 교과목 수업 ◎ 쾌적한 캠퍼스 환경  
◎ 여류 제도 있음. (수시접수)

◆ 모집과정

과정	학제	지원 자격
신학부	(주/야/토요일) 8학기	· 세례를 받은 자 · 남녀 상관없이 사명이 투철한 자 · 본교가 인정하는 타 신학을 졸업하거나 · 중퇴한 자는 편입 가능. · 일반대학 이상 졸업자는 · 본 과정 3학년에 편입.
신대원	(주/야/토요일) 4학기	
학점은행제	월~토(10시~22시)	

◆ 특 전

□ 방학 없이 1년 4학기 수업으로 조기졸업이 가능함.  
□ 여류 제도가 잘 활성화 되어 있음.  
□ 기적적인 장학제도로 인하여 학비가 저렴함.  
□ 본 과정은 서울캠퍼스와 인천캠퍼스가 동일 함.  
□ 모든 과정 주/야간반 운영.  
□ 편목과정은 신대원에서 2학기 과정을 수료하면 됨.

◆ 입학 시 구비서류

□ 입학원서(사진 1매 부착)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신대원과정을 지원자는 신학대학 또는 신학교졸업증명서  
(졸업장사본)1통  
□ 학점은행제 수업을 통하여 정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신학, 사회복지학, 상담학, 아동보육교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천총회신학** TEL.032-465-5511~2  
http://www.incs.or.kr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925-1 국제빌딩 2층, 5층(INCS평생교육원)

**교회,수양관 힐링센터로 추천합니다.**

|복지시설 외 타용도로 사용가능|

1. 시설: 1,2성전, 방 10개, 내실, 주방 3개, 기도실, 서재, 다용도실, 창고, 화장실 7개, 태양광 9kw, 기타
- 2.매매가: 상담과 답사 후 결정
- 3.현재 사용 중인 성구 무상양도
- 4.주소: 충북 영동읍 479-8의 1번.
- 5.토지: 2,756m<sup>2</sup> (833.69평)
- 6.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슬래브 462m<sup>2</sup> (139.75평) + α(40평)
- 7.기타: 조경(나무), 잔디, 주차장, 냇가, 전원마을, 경부선 영동역, 119, 관공서, 학교, 마트, 은행, 병원이 5~10분 거리에 있음.

[기타]  
※경북 영주시 교회매매 목회자 구함  
※목회자 고령으로 은퇴준비

문의전화  
**010-9679-8275**  
**010-9883-8275**

**교회대출안내**

2019-경기군포-007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로 목사님의 목회사역에 재정적인 큰 힘이 되도록 (은행근무 경력으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교회담보대출 : 교회건물, 상가교회, 성전부지 교회대지 및 건축자금

\* 교회 : 연 3.99%~5.49%대 (감정가의 70~80% 대출 가능)

\* 지역 상관 없음 \* 성전 구입 자금

\* 타 은행 담보도 가능함 \* 건축 중에도 가능

\* 현재 대출금액의 30%를 더 받을 수 있음

\* 교회 예배 관경 보지 않음 \* 교인수 상관 없음

**목사님 ~ !!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성전짓기운동본부**  
선교국장 임요섭 목사

문의전화 : 010-9166-5600, 010-8652-5600

TEL : 031-439-5555 FAX : 031-452-5800  
http://www.love-ch.net E-mail : moon4903012@hanmail.net

**오직 기독교의 바른 신앙을 갖고자 하는 신자들을 위한 말씀 ③**

「바른예수신교회」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는 단체입니다. 전 세계의 인류가 타고 있는 기차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로 위를 달려야 합니다. 유대 민족의 「여호와 신」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는 「절대 이치」의 신분이로 창세 전부터 이미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민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신 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르쳐야 하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만약 예수 외에 다른 것(다른 신이나 성공담 등)을 가르치면 이를 가르치는 자들이나 이것을 배우고자 모이는 자들은 모두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성경은 2천 년 동안 끊임없이 「높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돈을 사랑함이 만민의 부리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 영생을 얻고자 하는 한 부자에게는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좇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들의 깊은 의미는 사람을 섬길 수 없는 사람, 재물욕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물질풍요가 신앙의 척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외침은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이런 미신신앙, 기복신앙의 기저에는 「여호와신 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대민족의 여호와신은 「물질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땅에 가면 「청과 과일 흐른다」고 거짓말을 했지요. 그릇에 간 유대민족은 살인, 약탈, 절벽, 강간, 전쟁, 굶주림 등 참혹한 일들만 겪지 않았습니까? 만약 여호와가 만민의 하나님이라면 그와 같은 민행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를 통해서 알려지신 하나님은 「평화의 왕」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날 교회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열화하고 있습니까? 예수 정신 예수 말씀, 예수의 교훈은 알면서도 실천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교회와 교인을 심령 속에 「여호와가 자리 잡고 있는 한」 미래는 암담할 뿐입니다.

※뜻을 같이하시는 분들의 광고 성원을 바랍니다.  
광고 성원에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연관 서적 「예수는 누구인가」, 「복음에 대한 해석학적 고찰」을 원하시면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바른예수신교회** (김한규 010-4017-8696)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령길 22-38  
광고성원계좌 : 농협 3521241-2400-83 김한규

**[사]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1995년 개척하여 2번의 건축을하고  
30년 동안 부흥·성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부흥회

**부흥회 지원**

**강사 역량**

- 20년동안 1000회 이상 부흥집회 인도
- 한샘교회 담임목사
-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 사) 現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56대 대표회장
- 現 세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
- Good TV 부흥선교협의회 대표회장

**한샘교회**

- 1995.9 개척
- 2000.4 1차 성전건축
- 2008.1 2차 성전건축

**방향 및 성령의 역사**

- 철저히 개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 개교회의 목회방침에 따라
-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짐
- 학생, 청년이 꿈을 꾸고, 길이 열리며 부흥·성장함
- 영·육·물질의 문제가 해결,
- 기둥이 세워지고 축복의 증거가 나타남
- 사탄의 역사가 끊어짐

**신청 방법**

이승현 목사 : 010-8913-7777  
· 한샘교회 : 032-512-3375

**지원 대상**

-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
- 낙도·오지교회
- 3 無 부흥회:
- 사례, 숙소, 식사

말씀 가운데 자연과 함께 사는 좋은 사람들의 요양원

안양 비산동 교회 소속 **소망의동산실로원**

2021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소망의 동산 실로원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쾌적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들에게는 수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주 소 : 경기·화성시·봉담읍·분천길 185

예배시간 : 주일 오전 9시 / 수요일 오전 9시 (이보영 원로 목사님)

노년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등급)으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인 수발과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모집합니다.

입소 상담 문의 | 031-227-1460 / 원장 010-6217-4208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세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앙 교육

- 외국어 성경 생생한 원어 발음
- 해외 기독교 서적도 쉽게 번역
- 스캔, 음성, 사진 3가지 방식으로 통 번역
- 영어, 국어, 한자 전자사전 기능으로 문해력 도움

신학생들과 해외 사역자들에게도 유용

- WiFi 없이 9개 언어 오지에서도 완벽 작동
- 선교지에서도 언어 장벽 해결
- 통신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도 안정적 사용
- 60개 언어로 어디든 담대하게 복음 전파

**독자 특별 혜택**  
정상가 398,000 → 할인가 259,000원  
문의 010-9965-0961

**빠른구매**

**AI보카펜만의 독보적인 5가지 차별점**

1. 4가지 사전으로 영어, 국어+문해력 콜린스 영영사전, YBM영한사전, 표준국어대사전, 에센스한자사전
2. 인터넷없이도 9가지 언어 번역
3. 60개 언어 지원 - 진정한 글로벌 기기
4. SD카드 확장 - 무한 성장 가능
5. 36,000자 토플, 토익 등 대용량 단어장





#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크리스천투데이



**추천사**

장로님께서 칠순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 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감행감 정교(구세군 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신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춘일 목사 (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 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지게 읊어낸 책입니다. 박호철 목사 (창원내산교회)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매일묵상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린도후서 1:5]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기 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섬리하시는 통치자, 우리 하나님은 천칭을 갖고 계십니다. 이쪽 저울에는 그의 백성들이 받을 시련을, 저쪽 저울에는 그들이 받을 위로를 올려 놓으십니다. 시련의 저울이 비면 위로의 저울도 비게 됩니다. 시련의 저울이 잔뜩 차 있으면 위로의 저울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무겁습니다. 검은 구름이 잔뜩 끼어 있을 때 햇빛이 비치면 그 빛이 더욱 환해 보입니다. 밤이 깊고 사나운 비바람이 계속 몰아칠 때는

천국의 대장되신 주님께서 배에 타고 있는 자들에게 가장 가까이 계신 법입니다. 가장 낙심될 때가 심은 성령의 위로를 가장 많이 받을 때라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웬지 아십니까? 시련이 위로받을 여지를 만들어 놓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한 가지 이유입니다. 큰 시련들을 통과해야 비로소 마음이 넓어집니다. 환난이라는 삼이 위로의 저수지를 더욱 깊이 파놓아 위로받을 여지를 더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오시어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을 보시고 우리에게 있는 그 세상적인 위로들을 다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텅 비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여지가

그만큼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질수록 항상 더 많은 위로를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가 위로를 받기에 더욱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가장 행복한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 집 곳곳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지갑에 돈이 잔뜩 들어 있으면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고도 잘 자넉니다. 그러나 일단 그런 호리병박들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던 우상들이 깨끗이 제거되고 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

었나이다." 저 산 밑에서 외쳐대는 함성만큼 듣기 좋은 함성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깊은 시련과 고통을 통과하고 있는 영혼 깊숙한 데서부터 터져 나오는 기도만큼 진실한 기도도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데려다주므로 우리는 그만큼 더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고 심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무거운 짐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 무거운 짐들은 사실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를 예고하는 전령들입니다. 찰스 스펔전의 아침묵상, 열방선교단 제공

날 새를 함께 하소서 기독교 교회사 (13)

제3장 최초의 교회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교회는 에덴동산의 (에덴교회)였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에덴교회의 설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 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온 땅에 돌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며 그곳에는 베델리역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돌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핫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창 2:8-14). '창 2:8-14'에는 기독교에 대한 모든 것이 압축되어 있다. 에덴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교회로서 장차 계속하여 세워질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대표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전체 교회들에 대한 모든 것을 상징하고 예표한다. 우리는 에덴교회를 통하여 정립시켜주는 하나님의 기독교교회 전체에 대한 신학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교회의 수장

로마 가톨릭의 제45대 교황 레오1세 (Leo I, A.D. 440-461, 재위)는 'A.D. 445년' 로마제국 황제, 발렌티니안 3세를 통하여 교회의 수장을 교황이라고 선포하였다. 따라서 로마 가톨릭의 교회 수장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황이다. 로마 가톨릭의 교황은 교회 수장에 대한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의 모든 결정권을 교황에게 일임하였고 교황의 의복을 구약시대 대제사장의 의복과 같이 하였으며 심지어는 '교황 무오설' 교리를 만들어 내어 교황의 말에는 일점의 오류도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의 수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며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수장으로 하는 자체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모든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명령한다(엡 1:22; 4:15; 5:23, 골 1:18; 2:10, 롬 8:28).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독교의 수장되심은 창세전부터 신적 작정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우주 창조 때부터 실현되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후 에덴교회를 설립하셨을 때 에덴교회의 중심에 세워진 생명나무는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며 예표였다. 이 예표와 상징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생명'이라고 선포하신 것을 통하여 입증되어진다.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서 한 유기적 조직체계를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생명의 원리)로서 기독교의 근원이며 원리이고 또한 기독교의 오직 유일한 통치주이시기 때문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수장되심을 여러 경로를 통하여 증거하고 선포하는바 그것을 신학적, 역사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류에게 매우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인류에게 발생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서 첫째는 매우 아름다운 사회(하나님의 나라-천국-에덴교회)가 종료된 것이며, 둘째는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며, 셋째는 인류 역사가 타락, 범죄, 무질서 등등이 도입된 것이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거부되는 결과로 발생되었다. 이때에 거부되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명령의 거부-공의의 상실-무너진 주권'으로 연계되어진다. 따라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였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에 불과한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절대적 주권주이시기 때문이었다. 인간인 아담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받으면 되지만 하나님의 '거부된 명령-상실된 공의-무너진 주권'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문

제였다. 왜냐하면 피조인 인간은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나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인간이 그에 대한 형벌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그가 받은 형벌로 무너진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하나님께 발생한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했다. 이것이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신' 문제의 해결이었다.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 대속죄제를 치르셨을 때 그 대속죄제 의식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 하나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예수의 죽음이며,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기 위한 그리스도(로고스)의 회복이었다. 이때에 예수의 죽음은 육체적(신체적) 죽음으로서 '형벌의 죽음'이며 그리스도의 회복은 '로고스의 회복-하나님 공의의 회복-하나님 주권의 회복'이었다. 그리스도는 이때의 회복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전 피조 세계에 대한 통치권을 위임받았으며 기독교의 수장이 되신 것이다. 성경은 이와 같은 역사적 진리를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

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엡 1:20-22). 한편 그리스도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이 회복되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은 인류의 구원 문제를 동반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다시 찾은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인간과의 관계를 유지하시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진 인간들에게 더욱 깊은 배려와 애정을 쏟으신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재건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킬 종들을 세우시며 그들에게 각종 사명과 은사를 부여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신다. 기독교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된 인간의 사명을 진행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 도구로 세워진 것이었다. 따라서 모든 교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유기적 조직 체계를 이루는 가운데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기뻐하심을 위한 사명을 이룩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알게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계속> 청교도 도서관 제공

NIV 영어성경 따라잡기

Psalm 118:6 NIV  
The Lord is with me; I will not be afraid. What can mere mortals do to me?  
- will not be :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의사결심을 나타냄)  
- with : 함께, 곁에 있는  
- afraid : 두려워하는, 겁내는  
- mere : 겨우 ~의, 한낱 ~에 불과한  
- mortal : (특히 아무 힘없는 일반 보통) 사람, 인간  
- do (to someone) :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다, 영향을 주다

시편 118편 6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낱 힘없는 인간들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카카오톡 | 영어성경 독해 연습



행복한농촌, 함께하는KRC

함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6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KFC 한국농어촌공사



뇌치유상담/신경신학편(11) 마음챙김명상의 4단계 훈련법

손매남 박사의  
당신의 뇌는 안녕하십니까



손매남 박사

1단계: 준비와 안정 (약 3분)

자, 이제 편안하고 안전한 자세로 명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의자에 앉아 계시다면,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도록 자세를 잡아주세요. 척추를 곧게 세우되, 어깨와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가볍게 풀어줍니다. 바닥에 앉아 계시다면, 쿠션이나 방석을 활용해 몸이 편안하게 기댈 수 있도록 해 보세요. 두 손은 무릎 위나 허벅지 위에 부드럽게 올려놓습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부드럽게 눈을 감거나, 눈을 뜨고 있는 것이 편하다면 시선을 바닥의 한 점에 고정합니다. 나의 몸이 지금 이 순간, 이 공간에 단단히 연결되어 있음을 느껴봅니다. 앉아 있는 자세를 통해 느껴지는 몸의 무게와 안정감을 잠시 느껴보세요. 의자나 바닥이 나를 편안하게 지지해 주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이제 몸의 불필요한 긴장을 흘려보내기 위해 몇 차례 심호흡을 해보겠습니다.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맑고 깨끗한 공기가 몸속 깊이 들어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입을 통해 길게 ‘하아~’하고 내쉬면서, 하루 동안 쌓였던 모든

긴장과 스트레스가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아주 천천히 내쉬면서 어깨와 목의 뻣뻣함이 물처럼 스르르 흘러내리는 것을 느껴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얼굴 주변의 근육까지 부드럽게 이완됩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편안한 표정을 지어보세요.

2단계: 호흡 알아차리기 (약 6분)

이제 의식의 초점을 오직 나의 호흡에 맞춥니다. 호흡을 억지로 통제하거나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호흡을 그저 바라봅니다. 숨이 코끝을 통해 들어오고 나가는 그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들어오는 숨이 조금 더 시원하게 느껴지고, 내쉬는 숨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미세한 온도 차이를 알아차립니다.

이제 주의를 가슴과 배 쪽으로 옮겨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부드럽게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내쉬 때 자연스럽게 가라앉는 그 움직임을 느껴봅니다. 손을 배 위에 살짝 올려놓고 이 움직임을 직접 느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호흡의 리듬이 마치 잔잔한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사라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명상을 하다 보면 ‘오늘은 뭘 할까?’, ‘이거 잘하고 있는 건가?’와 같은 온갖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걱정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아, 생각이 올라왔구나’ 하고 조용히 이름을 붙여주고, 마치



명상은 내담자가 자신의 고통스러운 감정과 생각을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닌, 잠시 머물렀다 사라지는 현상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심리적 유연성을 획득하도록 돕는다.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을 바라보듯, 그 생각을 판단 없이 보내줍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되돌립니다.

주의가 계속해서 흐트러지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때마다 친절하게, 부드럽게, 나의 의식을 다시 호흡의 여정으로 데려오는 연습을 합니다. 들어오는 숨, 나가는 숨, 그 단순한 움직임에 집중하며 마음의 중심을 찾아갑니다. (잠시 침묵)

3단계: 몸의 감각 알아차리기 (약 5분)

이제 호흡에 머물렀던 주의를 조금 더 넓혀 몸 전체의 감각으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가장 편안하게 느껴지는 몸의 한 부분을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그곳에 의식의 빛을 비추는 것처럼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손끝에 미세하게 느껴

지는 따뜻함이나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 있는 압력감일 수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든 좋습니다.

이제 천천히 주의를 몸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동해 봅니다. 발바닥에서부터 발목, 종아리, 무릎, 그리고 허벅지까지 각 부분에서 느껴지는 무게, 가벼움, 저릿함, 혹은 아무 느낌이 없는 그 모든 감각들을 그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이어서 엉덩이가 닿아있는 의자나 바닥의 느낌을 느껴보세요. 단단함, 부드러움, 따뜻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제 허리와 등, 어깨, 팔을 지나 손가락 끝까지, 마지막으로 얼굴 주변의 감각까지 섬세하게 느껴봅니다. 이마, 눈 주변, 볼, 턱의 근육이 편안하게 이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몸이 하나의 온전한 감각 덩어리로 숨 쉬고 있음을 느껴보



많은 심리적 고통은 원치 않는 생각이나 불안, 슬픔 등 감정을 회피, 억압하려는 시도에서 발생합니다. 명상은 회피가 오히려 고통을 키운다는 전제로 비판단적 수용을 훈련한다.

세요. 몸의 모든 세포가 조용히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4단계: 마무리와 통합 (약 2분)

이제 서서히 명상에서 깨어날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의식을 서서히 외부로 돌려봅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 가까이에서 들리는 소리 등 주변의 소리들을 분별 없이 그저 듣습니다. 앉아 있는 공간의 공기 흐름을 느껴보세요. 공기의 온도가 피부에 닿는 감각을 알아차립니다.

이제 손가락과 발가락을 부드럽게 꼼지락거리며 몸을 깨워줍니다. 손목과 발목을 가볍게 돌려주고, 팔다리를 스트레칭하여 굳어있던 몸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나듯 천천히 움직입니다.

모든 준비가 되면,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눈을 뜹니다. 시야에 들어오는 것들을 잠시 멍하니 바라보며, 명상 후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감각이 내 안에 온전히 스며들도록 시간을 줍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고 힘을 선물한 스스로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며 명상을 마칩니다. 이 고요함이 하루의 남은 시간 동안 함께하길 바랍니다.

◆ 손매남 박사

한국상담개발원 원장  
경기대 뇌심리상담전문연구원 원장  
美 코헨대학교 국제총장  
국제뇌치유상담학회 회장

건강상식

먹어도 좋은 곡식, 클렌징도 제적

토너, 아이크림, 에센스, 로션, 크림, 자외선 차단제 등 우리 나라 여성들이 바르는 기초 화장품 개수만도 4~5개가 넘는다고 한다.

과연 그렇게 많이 발라야 피부가 좋아질까. 이에 대한 나의 답변은 ‘No’. 피부에 좋은 것을 더하기 전에 나쁜 것을 빼내어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인체도 건강하기 위해서는 몸 속의 나쁜 노폐물을 잘 배출하는 것이 필요하듯

피부가 맑고 깨끗하기 위해서는 클렌징이 중요하다. ‘화장을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카피 역시 이를 말해준다. 우리가 밥상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곡식은 모공 속 노폐물을 제거하고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주는 훌륭한 클렌징 재료다.

콩은 단백질과 비타민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피부를 매끄럽고 윤기 있게 가꾸어준다. 또한 콩에 들어 있는 사포닌 성분은 모공 속 노폐물과 피지를 제거해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가꿔준다.

울무는 단백질, 무기질, 필수아미노산 등이 풍부하여 피부의 신진대사를 높여 노폐물 배출을 순조롭게 해준다. 또한 항산화 작용으로 거친 피부, 기미, 주근깨 등에 효과적이며,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는 작용도 있다.

보리는 화장독이나 알레르기성 피부의 붉은 기운을 다스려 막힌 혈행을 풀어주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피지 생성을 억제한다.

특히 모세혈관 팽창으로 양 볼이 붉은색을 띠는 사람이 보릿가루 클렌징을 꾸준히 하면 깨끗하고 맑은 피부톤을 가질 수 있다.

기름기가 많은 그릇을 밀가루로 씻으면 세제 없이도 잘 닦이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 밀가루는 세정력이 우수하다. 따라서 통밀 가루를 이용해서 클렌징을 하면 노폐물이 잘 제거되고 미백효과가 있어 피부를 하얗고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

살겨에는 비타민A를 비롯해 철분, 인

등의 무기질이 함유되어 있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혈액을 좋게 하여 혈색을 맑게 해준다. 또한 미백효과가 뛰어나 칙칙한 피부를 한층 맑게 해준다.

건강을 위해서는 백미보다 현미 섭취를 권장한다. 이는 현미가 백미보다 영양소가 더 다양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미는 피부에도 좋다. 현미의 다양한 영양소가 피부에 공급되어 피부가 윤택해질 뿐 아니라 각질 제거 효과도 있어 피부를 맑게 해준다.

녹두는 해독작용이 있어 피지와 노폐물을 말끔히 제거하여 피부를 깨끗하게 해준다. 또한 녹두는 성질이 차서 열독을 풀어주고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여 피부를 윤기 있게 가꿔준다.

이러한 곡식 가루를 클렌징 로션이나 클렌징폼에 섞어 세안을 하거나 세안 후 팩을 해주면 된다. 꾸준히 해주면 피부 깊숙이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여 생얼에도 자신 있는 건강한 피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김소형 한의학박사

하늘이 선물한 신비의 물질,  
일라이트로 피부를 정화시켜주세요

SCIE급 논문 등재 성분 함유

2년 전통발효한 감발효 원액 함유

비건 VEGAN 인증 소재 함유

천혜의 광물, 일라이트 함유

SCIE급 논문 등재 성분 "큰열매모자반"

QR코드 찍고 구매하러 가기

검색창에 "라파로페"를 검색해보세요.

고객상담센터 043-900-0367

쇼핑몰주소 www.rafarophe.com



신앙과가정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슬픔과 실패를 당할 때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낙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안일하게 두시지 않고 고난과 환난으로 연단시키시는 법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6절에 “...내 아들이 주의 징계  
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  
이나라”고 했습니다.

십일조 하다가 떼어먹어도 징계가 없고, 주일 안 지켜도 채찍이 없고, 별스런 죄를 다 지어도 하

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었거나 구원 못 받았거나 했을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최후에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 있으므로 잘못해도 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랑하는 자일수록 그때그때 때리시고 깨달으면 더 크게 축복하십니다.

욥기 5장 17~18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

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러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 시다가 싸매시니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 치시나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 랑을 의심하지 말고 더욱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저기 앓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슬픔을 당할 때,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이 계속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더욱 굳세게 믿고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야 승리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 제공

은혜의샘물 십자가와 예수



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세 번씩이나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당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예언하셨다.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출세와 성공의 장소로 생각했던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예수는 죽음을 결심하였다. 예수는 성공한 갈릴리 지역과 그를 환영하고 인정해 준 민중을 떠나서 그를 죽이려 하는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 그것은 예수께서 인류의 구원을 희망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민중의 뜻은 예수께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예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는 것이었다. 제자들의 마음은 궁전에 있었고, 민중의 마음은 해방에 있었지만, 예수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의 실현에 있었다. 제자들은 보이는 예루살렘에 삶의 목표를 세웠고, 개인의 출세와 성공 그리고 명예와 권력에 다 목표를 세웠지만,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참 예루살렘에 삶의 목표를 세웠고, 개인의 성공과 출세보다 는 소의당하고 고등당하는 민중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며,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실현에다 목표를 두었다.

이렇게 예수께서 큰 뜻을 품고 온몸으로 희생하셨을 때에 수치와 죽음의 십자가는 변하여 축복과 생명의 십자가가 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을 찾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 것은 이천 년 전 예수께서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추구하지 아니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이다. 진실로 예수라는 성품을 받으려 오지 아니하시고, 성미터 오셨으며, 많은 사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셨던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제공

[마가복음 15장 1-47절]

앞에서 '창조주와 신앙', '구원과 신앙', '교회와 신앙', '고난과 신앙', 그리고 '성령과 신앙'에 관한 주제로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침자가와 신앙'이란 주제로 '침자가와 예수', '침자가와 하나님', '침자가와 그리스도인', 그리고 '침자가와 삶의 방식'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십자가과 예수에 관해서 살펴보겠다. 십자가는 중죄인을 처벌하는 사형 틀이다. 고대 페니키아인들이 처음 십자가를 형틀로 사용한 이래 이 방법은 여러 나라에 수출되어 예수 때에는 아주 보편적인 처벌 방법이 되었다. 죄인의 몸을 십자가 틀에 넣고 손과 발에 끈을박아 매는다는 이 처형틀은 너무 잔인해서 로마인들은 노예나 흉악범인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래 전 유대인들은 헬라제국이나 로마제국의 압제 하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독립 전쟁을 일으켰다. 따라서 많은 유대인들이 반란죄 및 내란 음모죄로 체포되어 십자가에 처형당하곤 했다. 예수께서도 부패한 성전의 지도자들에 대항해서 성전을 청화시키 보려고 하셨지만, 결국에는 성전 모독죄 및 반란죄로 대제사장 가이바에 의해서 정죄되고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되었다.

그러면 죄인들은 어떤 식으로 십자가에 처형되었을까? 1968년 예루살렘의 기벳돈 하미브타르 발굴에서 1세기경의 무덤이 발견되었다. 이 무덤의 유골함 속에는 요한나 벤하폴이라는 20대 남자의 유골이 들어있었다. 이 유골 중에는 매우 굵고 커다란 쇠못이 박혀 있는 발뒤꿈치 뼈도 있었다. 발뒤꿈치 뼈에 대장장이가 불에 달궂은 망치로 두들겨 만든 굵고 커다란 쇠못이 박혀 있었다.

이 못에 붙은 나뭇조각들을 살펴본 결과 못이 나무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못의 뒤끝이 안쪽으로 구부러져 있었고, 삽자루 자체는 올리브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리고 못은 조수의 발등이 아니라, 발뒤꿈치 옆 복사뼈 밑에 박혀 있었으며, 아커시아 나뭇조각이 조수의 발을 받치고 있었다. 유골함 속에는 부러진 정강이뼈도 있었다. 이 뼈

는 죄수가 십자가에 처형된 후에 살아 있는 죄수를 절명시키기 위해서 큰 나무못치로 쳐서 부러뜨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발견된 손과 손목뼈에서는 손바닥이 아닌 손목 위 두 개의 팔뚝 사이에 큰못을 친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는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의 체중을 지탱시키기 위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참고로 2천 년 전에 시행됐던 십자가 처형식을 재구성해 보겠다. 우선 죄수가 십자가형의 연도를 받으면, 상의를 벗긴 채 나무 기둥의 허리 부분에 양손이 묶인다. 그러면 죄수의 몸은 가역 자 모양 이 되고 죄수의 벗은 등이 하늘을 향해 쏠린다. 그 등을 향해서 로마 군인이 날카로운 동물들의 뼈나 철 조각이 달린 채찍으로 가진할 때까지 때린다. 이 때의 몸이 채찍이 닿을 때마다 피가 튀기고 살점이 도려내진다. 이토록 채찍을 받은 후에 죄수는 십자가의 가로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형장을 향해 걷는다.

형장에 도착하면, 죄수가 짊어지고 온 가름대를 기둥에 맞춘다. 그리고 땅에 눕혀진 십자가 위에 죄수를 놓는다. 죄수의 두 발은 서로 기둥의 받침대에 올려지고 차렷 자세 모양으로 두 발을 모은다. 이때의 몸은 바로 눕힌 상태가 아니라 가로로 눕힌 상태가 된다. 죄수의 두 발이 서로 기둥에 나란히 모이진 상태여서 복사뼈 바로 밑에 다툼을 받는다. 굵고 울퉁불퉁한 대못은 두 발의 복사뼈를 관통한 다음 나무로 깊이 박히게 된다. 그리고 나서 죄수의 상체를 비틀어서 바로 눕힌다.

다음에는 끈으로 양팔 목을 가름대에 묶고 양손의 손뭉개 사이에 못을 박는다. 이렇게 한 다음 십자가를 세워 고정시킨다. 상처가 뒤물린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들은 대단한 통증을 느끼지만 그렇다고 쉽게 죽지는 않는다. 낮에는 뜨거운 햇빛과 밤에는 추위를 견뎌야 하고, 때로는 날짐승의 공격을 받으며,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 내버려 둔다. 그러나 죄수를 급히 죽여야 할 경우에는 큰 나무망치로 정강이뼈를 쳐서 부러뜨린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이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예수께서 못 박히셨을까?

첫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타락한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의 질투 때문이었다. 유월절 식사 후에 체포된 예수에게는 신성모독죄, 성전모독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한 국가 반란죄 등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예수를 재판한 빌라도 총독은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 만일 예수에게 죄가 있었다면, 그것은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인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인과 세리와 같은 주변부 민중의 친구가 되며,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돌본 죄범이었다.

또한 예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인  
들처럼 율법의 문자적 해석이나 구전법에 얽매어  
보다는 율법의 정신에 따라 생활하였다. 법 이전에  
사랑을 실천하였다. 안식일 법을 어길지라도 사랑  
을 실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다. 사람이 안식일  
을 위해서 존제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제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예수  
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었다.

둘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예수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코자 하신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다. 예수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죽음이었다. 그분의 죽음은 인류의 죄 값으로 인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대신해서 죽은 고

귀한 죽음이었다. 이 사실이 그분의 부활로써 입증되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 이 사실이 성령의 오심으로 밝혀졌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인간의 죄 짐을 감당케 하시고 인간을 구원과 생명으로 선택하신 은혜의 사건에 나타났다. 예수는 하나님에 의해서 죄인인 우리 인간이 못 박혀야 할 그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힌 사람의 아들인 동시에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에게 구원과 축복과 생명을 예정하셨고, 자기 자신에게는 십자가의 저주와 죽음을 예정하셨다.

저주와 죽음을 당해야 할 인간에게 축복과 생명을 예정하셨고, 자기 자신에게는 인간이 당해야 할 저주와 죽음을 예정하셨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인간의 몫을 자기가 취하는 대신에 자기의 몫 곧 축복과 생명을 인간에게 주기로 결정하셨다. 이것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은혜이다.

셋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예수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코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려고 예수께서 스스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9장 5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승전하실 기약이 차 가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열어갑니다

국토교통부 TS 한국교통안전공단



# 성도를 유혹하는 자에게 음부의 문은 열려있다 ‘천재 음악가 파가니니’



한평우 목사

이 시대에는 뜬소문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은 부패한 속성의 질료를 가지고 있어서, 들은 소문에 나름대로 각색하고 덧붙이기를 좋아한다. 이런 유혹의 본능 때문에 소문의 당사자들은 큰 상처를 입고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 더구나 소문을 삼시간에 전 세계로 보낼 수 있는 인터넷의 발달은 당사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 영조를 예로 들 수 있겠다. 영조는 이복형인 경종을 죽였다는 소문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했는데, 그 고통이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19세기 초에 이런 잘못된 소문을 안고 살아가야 했던 것은 물론이고, 죽은 이후에도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있다. 황당한 소문으로 죽어서까지 고통받아야 했던 그 사람은 바로 이탈리아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Nicolo` Paganini, 1782-1840)이다.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한량으로 노름을 좋아했고 악기를 약간 다룰 줄 알았다. 그가 네 살 되던 해에 홍역이 창궐하여 동생이 죽었고 그도 합병증으로 살 회망을 포기해야 했는데, 기적적으로 깨어났다. 그는 가난 때문에 항상 낙진하고 어두컴컴한 방에서 지내야 했고 그의 어린 시절 유일한 장난감은 아

버지의 바이올린이었다. 파가니니의 아버지는 아들이 바이올린에 소질을 보이자 매일 대여섯 시간씩 혹독하게 연습시켰다. 또한, 그를 제노바의 여러 음악가에게 보냈다. 그는 6개월만 지나면 선생을 능가하곤 했다. 그러자 아버지의 야심은 더욱 커졌다. 아들로 인해 부자가 되고자 하는 단순한 속물적 욕망 때문이었다. 파가니니는 당시 유행하는 프랑시스 연주 기법이 아니라 자신의 독특한 연주 방법을 독학으로 고안해 냈다.

그는 결국 어린 나이에 연주자로 나서게 되었고 가는 곳마다 열광적인 찬사를 받았다. 그의 연주회는 표가 항상 매진될 정도였다. 그는 도박에 빠져 수차례의 연주회 수입을 하룻밤에 날리기도 했고, 심지어 훌륭한 악기인 안드레아 아마티(Andrea Amati) 바이올린을 도박판에서 날리기도 했다. 그렇게 연주회를 펴고 별 상황에 마침 어느 부유한 프랑스 팬이 파르니에리(Guarneri) 바이올린을 빌려 주어 연주회를 예정대로 할 수 있었다. 또, 지나치게 뛰어난 연주실력 때문에 그에게는 항상 고약한 소문이 따라다녔다.

파가니니는 아름다운 이탈리아 여인과 친밀한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사랑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인이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된 파가니니가 발작을 일으켰고, 자신도 모르게 옆에 있던 칼을 여인을 향해 휘둘렀다. 그 일로 여인이 죽고, 그는 4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야 했다. 그는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기에 감옥에서의 지루한 시간을 글을 쓰거나 읽으며 보낼 수 없었다. 어느 날 바이올린을 넣어달라는 그의 요청이 허락되었고, 그는 감옥에서 4년 동안 바이올린을 끼고 지내면서 탁월한 연주법을 독학으로 익히게 되었다. 파가니니의 실력은 대단하여 바이올린 줄을 다 끊어버린 후 G 현 하나만 가지고 온갖 화려한 소리를 흥내 냈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연주를 할 수 있었다.

청중들이 그의 연주에 깊이 빠져든 나머지 실신하는 일도 자주 일어났다. 보통 사람의 연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신을 흔들어 놓는 연주였기에 연주회가 끝나면 사람들이 미친 듯 무대로 뛰어 올라가 귀신의 정체를 알아내겠다며 바이올린을 살살이 훑어보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한다. 사람의 재능만으로는 할 수 없는 연주도 여겼기 때문이다. 당시 피옴비노와 루카의 여군주 엘리자(Maria Anna Elisa Buonaparte, 1777-1820)는 나폴레옹의 여동생으로, 그의 연주를 들을 때마다 혼절했다고 한다. 군주가 연주를 듣다가 수많은 청중 앞에서 자꾸 혼절하는 것이 창피하여 나중에는 커튼 뒤에서 연주를 들을 정도였다고 한다. 아마도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 들었던 악귀가 떠나갔다고 하는데 그에 버금가는 연주를 했던 것이 아닐까?

그로부터 많은 음악적 영향을 받았던 프란츠 리스트(Franz Liszt)는 1840년

파가니니의 추도사에서 “소문에 의하면 그는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넘겼으며 그가 그토록 매혹적으로 켜던 네 번째 현은 바로 그가 제 손으로 교살한 애인의 창자로 만든 것이라고 한다.”라고 했다. 리스트조차도 파가니니의 신기에 가까운 연주가 악마의 도움 때문이었다고 생각할 정도였으니 일반인들은 말할 필요조차 없었을 것이다. 그뿐인가? 그가 비엔나에서 연주한 후에 여자들은 너도나도 파가니니의 머리 스타일을 따라 했고, 남자들은 바이올린 문양이 새겨진 스카프를 돌렸다. 단추나 지팡이, 담뱃갑, 약 상자 등에도 그의 초상이 새겨졌다. 한마디로 그는, 연주를 통해 사람들의 감성을 뒤흔들어 놓는 천재였다.

음악가 슈베르트는 그의 연주를 본 후, “저런 인물은 두 번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탄복했다. 당시, 빈이나 베를린에서는 이탈리아 연주자들을 낚잡아 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파가니니의 연주를 본 후에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연주회를 관람한 장면을 묘사한 화가는, 남자들이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무대 위로 뛰어오르려는 여자들을 가까스로 막아내는 모습을 그렸다. 당시 성악 아카데미의 교장은 연주를 본 후 친구 괴테(Goethe,『파우스트』의 저자)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

“이 사람이 이루어내는 것은 비상하며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남녀노소 누구나 그의 연주에 열광한다는 것, 그리고 같은

악기를 다루는 다른 어떤 대가들도 도저히 그를 흉내 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연주는 도도하기만 한 영국인들마저 열광하게 했다. 파가니니의 연주회는 풋값이 보통 연주자의 몇 배나 되는데도 항상 표가 매진되었다.

베를리오즈(Berlioz, 1803-1869)는 파가니니를 만난 후 이런 글을 썼다.“나는 한 남자를 만났다. 긴 머리에 꺾뚝은 듯한 눈빛, 피폐한 얼굴, 이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천재성에 사로잡힌 거인 중의 거인, 그의 모습은 내게 큰 충격을 주었다.” 사람들이 그를 수전노라고 비난하였지만, 파가니니는 베를리오즈가 생활하고 시달릴 때 그 당시 천문학적 금액이었던 2만 프랑을 아낌없이 주었다. 그가 과도하게 돈을 아낀 이유는 마흔 살에 둔 어린 아들 때문이었다. 아들만큼은 고생시키지 않으려는 순수한 열망이 있었던 것이다.

그는 결국 니스에서 후두 결핵으로 58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사제는 향간의 소문에 따라 ‘그가 사탄과 결탁하였기에 그런 기막힌 연주를 할 수 있었다고 믿어, 장례를 거절했다. 파가니니는 자신의 고향인 제노바에 묻히기를 소원한다고 유언하였으나 주교는 거절하였다. 그와 가까웠던 체솔레 백작은 ‘그를 오래전 부터 알아왔으나 결코 비기독교적인 태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선언했으나 소용없었다.

주교는 파가니니가 부자임을 알고는,

사탄의 도움으로 벌어들인 재산 일체를 교회에 헌납한다면 이를 참회의 표시로 인정하고 장례를 허락하겠다고 제의했다. 결국, 아들 아킬레(Achille)는 아버지가 연주로 벌어들인 그 막대한 돈을 교회에 헌납할 수밖에 없었다. 교회에서 장례를 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리고 1년 뒤 1876년, 파가니니가 죽은 지 36년 만에 결국 로마 당국으로부터 청원이 받아들여졌고, 드디어 가톨릭의 전례에 따라 파가니니의 장례를 치를 수 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그나마도 다른 신자들의 감정을 고려하여 밤중에 조용히 장례를 치르는 조건이었다.

그와 함께 생전에 유럽 사람들을 열광시켰던 바로 그 바이올린은 현재 도리아 투르시 궁전(Palazzo Doria Tursi)에 보관되어 있다. 혹시 악기에 악마가 붙어 있다는 소문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연주하기를 꺼리는 것은 아닐지 궁금해진다. 그 귀한 악기가 박물관의 유리 상자 안에서 수많은 사람의 의심 어린 눈길을 견디어 내는 것도 힘들 것 같다. 이시대의 파가니니 같은 또 다른 천재가 나타나 200년이나 커췌이 쌓인 먼지를 훌훌 털어내고 그 바이올린으로 연주한다면 얼마나 멋진가. 그리고 그 바이올린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날을 소망해 본다. 그가 작곡한 카프리스 24 번의 연주를 들으며 한 인생이 터무니없는 소문으로 얼마나 힘들어질 수 있는지 곱씹어본다.

한평우 목사(로마 한인 교회 담임목사)

## 찬양 인도 시 어떤 멘트가 좋을까?

예배 인도자들은 종종 예배 인도 시 얼마나 멘트를 포함해야 하는지 묻는다.

나는 찬양 사이에 멘트가 길어서 설교를 듣는 듯한 예배에도 잠석해 봤고, 어떤 때에는 멘트 없이 찬양만으로 이루어져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 콘서트처럼 느껴지는 예배에도 참석해 봤다.

찬양 인도 시 도움이 될 만한 멘트에 관한 나의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

1. 할 말이 있을 때만 말하라. 멘트가 찬양에 스며들도록 하라, 즉, 할 말이 있는 경우에만 말하라. 예배 인도자로서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확성기



Regi Stone

를 든 차어리더가 아니다. 우리는 단체행사의 호스트가 아니다. 우리가 인도하는 찬양시간을 통해, 예배의 다른 요소들 즉, 기도, 성경 말씀 설교와 함께 성도들이 하나님과 서로 연결되는 심오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에 찬양 인도 시 어떤 멘트를 하는지는 무척 중요하다.

2. 하나님의 말씀(성경말씀)은 멘트를 하기에 완벽하다. 멘트에 있어서 성경에 기반한 짧은 메시지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설교와 더불어 찬양은 중요한 예배의 요소이며, 찬양을 인도할 때 짧은 성경 말씀의 멘트는 설교말씀과 연결고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예배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집중할 때 실제로 우

리를 변화시킨다.

3. 비록 우리가 무대(강대상) 위에서 찬양을 인도하지만, 우리가 주목받아서 안 된다. 우리가 회중과 소통할 때, 멘트를 많이 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선 블로그 글을 최근에 읽은 적이 있다. 그 글의 요점은 기쁨과 열정으로 사람들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기쁨과 열정으로 성도들을 맞이해야 한다. 블로그 글의 요점은 -예배 인

도자로서- 우리는 마이크의 힘에 넘어가는 것보다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을 인도할 때 우리가 하는 멘트는 의미 있어야 하며, 최대한 말을 아껴야 한다. 요한복음 3장 30절을 바꿔 말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가 드러나지 않게 하여, 그리스도께서 더욱 드러날 수 있도록 합시다.”

### ◆Regi Stone

Experience Worship의 창립자인 Regi는 앨범제작 및 영적 모임에 이르는 다양한 예배자료를 꾸준히 제작해왔다. 또한 Belden Street Music의 소유자이자 발행인으로서 100곡 이상의 예배음악을 제작했다. Regi는 내슈빌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Christ Church)와 전국의 컨퍼런스 및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이다.

### # 찬양한표

나의 연약함 모두 아시는 주님  
나의 부족함 모두 아시는 주님  
주님 나로 인해 매일 아파하시며  
그분 나를 위해 기도하네

나의 연약함, 진명환

## 종이를 펼치면

##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때문에 신문이나 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신문과 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펼칠 때마다 생생히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소식과 지식!

펼쳐지는 신문과 책 - 그 종이를 대한제지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제지를 펼쳐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대한제지**



## 원더걸스 출신 선예, 박진영 콘서트 관람 후 존경과 감사의 마음 전해

13살 연습생 시절부터 이어진  
신뢰의 인연, 무대 위 아티스트  
박진영을 향한 진심 어린 응원

그들 원더걸스 출신 가수 선예가 가수  
이자 프로듀서 박진영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의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선예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를 통해 박진영의 단독 콘서트 'HAPPY  
HOUR'를 관람한 뒤 소감을 전하며,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인연 속에서 느낀 신  
뢰와 감사의 마음을 담담하게 전했다.

◆콘서트 관람 후 전한 소회  
선예는 글에서 박진영을 떠올릴 때마  
다 늘 같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천재에게 성실함과 노력, 그리고 겸손함  
과 순수함이 더해지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된다는  
생각은 박진영 피디님을 보면서 늘 들었  
던 마음”이라고 적었다. 이는 무대 위에서  
의 모습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변함없  
이 이어져 온 박진영의 태도와 자세가 주  
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  
다는 의미로 읽혔다.

◆연습생 시절부터 이어진 인연



그들 ‘원더걸스’ 출신 가수 선예가 박진영  
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을 전했다. ©선예  
인스타그램 캡처

이러 선예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돌아  
보며 박진영과의 첫 만남을 회상했다. 그는  
“뽕도 돈도 아무것도 없던 13살의 나  
를 믿고 연습생으로 뽑아주시고, 여전히  
부족함 투성이었던 나를 믿어주시고 여  
자 걸그룹을 만들어 주시고, 결혼식에서  
축가까지 불러주시 참 좋은 어른”이라고  
표현했다. 연습생 시절부터 데뷔 이후, 그  
리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까지 함께해 준  
박진영의 존재를 언급하며, 한 사람의 선택과  
신뢰가 한 아티스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차분히 전했다.

◆무대 위 아티스트로서의 평가  
선예는 이번 콘서트에 대해서도 각별

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올해의 콘서  
트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다”고  
밝히며, 박진영의 무대를 직접 지켜본 소  
회를 전했다. 그러면서 “대중가수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아티스트”라  
고 덧붙이며, 오랜 시간 동안 대중과 호  
응하며 무대에 서온 박진영의 음악적 행  
보와 에너지를 높이 평가했다.

◆존경과 응원의 메시지  
글의 말미에서 선예는 짧지만 진심이  
담긴 응원의 말을 남겼다. 그는 “존경합  
니다”라는 표현과 함께 “60살까지 춤추  
실 거라고 하셨는데 이제 6년 남았다”며  
박진영의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하는 메  
시지를 전했다. 이는 오랜 세월을 함께해  
온 선후배이자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공  
유해 온 관계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격려  
로 전해졌다.

한편 선예는 2007년 그룹 원더걸스로  
데뷔해 ‘텔 미(Tell Me)’, ‘쏘 핫(So Hot)’, ‘노  
바디(Nobody)’ 등 다수의 히트곡을 발표  
하며 큰 인기를 얻었다. 이후 2013년 캐  
나다 교포 출신 선교사와 결혼, 현재 세  
하에 세 딸을 두고 있다. 이후에도 다양  
한 활동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며 자신만  
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승연 기자

## HASHAV, 크리스천 힙합 싱글 ‘Apportioned It’ 발매



계획이라는 뜻의 접미처럼, 이번 신곡은  
성경 에베소서 4장의 메시지를 중심에  
두고 교회 공동체와 은혜의 본질을 음악  
으로 풀어냈다. 이번 작품에는 아티스트  
ANAZAO(아나자오)와 ATTRACKTV(어  
트랙티비)가 피처링으로 참여했다.

이번 싱글에서 ANAZAO는 메인 아티

스트로서 곡의 전반을 이끌었다. 보컬과  
랩을 넘나들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은혜가 어떻게 하나의 몸을 이루는지를  
고백과 선언의 언어로 표현했다. 곡은 비  
교와 오해, 정죄가 발생하는 현실적인 공  
동체의 모습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결국  
은혜 안에서 다시 연결되는 과정을 담담  
하게 그려냈다.

곡의 후반부에는 ATTRACKTV가 참  
여해 신앙 고백의 중심을 이뤘다. “우리  
머리 되시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  
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걸 바랐다”라는 가  
사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며, 공동

체의 실제적인 회복은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담고 있다.  
개인의 삶과 교회 공동체 속에서 경험한  
사랑과 감사의 내용을 차분하게 풀어내  
며 곡의 흐름을 마무리했다.

HASHAV는 성경 본문에 근거한 신학  
적 메시지를 현대적인 음악 언어로 구현  
하는 CCM 프로젝트 프로듀싱 팀으로,  
예배와 삶, 그리고 공동체를 연결하는 작  
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번 싱  
글 ‘Apportioned It’ 역시 이러한 방향성  
속에서 공동체와 은혜의 의미를 다시 묻  
는 작품으로 소개됐다. 최승연 기자

## 광림교회, 성탄 기념 음악회 개최 파리나무심자가소년합창단 초청

서울 광림교회가  
성탄절을 앞두고 세  
계적인 소년합창단  
을 초청해 특별한 음  
악회를 마련한다. 교  
회는 22일 강남구 소  
재 광림교회 본당에  
서 ‘파리나무심자가소년합창단’ 성탄 축



하 공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파리나무심자가소년합창단’은 1907년  
설립된 프랑스 소년합창단으로, 빈소년  
합창단과 킵스칼리지합창단과 함께 세  
계 3대 소년합창단으로 꼽힌다. 합창단  
은 투명한 음색과 절제된 표현으로 유럽  
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사랑받아 왔으며,  
이번 공연에서도 바흐·모차르트·헨델 등

고전음악 거장의 작품을 비롯해 성가곡  
과 민속 합창곡, 크리스마스캐럴을 선보  
일 계획이다.  
광림교회 관계자는 “성탄의 기쁨을 음  
악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준비한 자리”  
라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무료 공  
연으로 진행되니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노형구 기자

###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오전	5:00	00 TV새벽예배 새중앙교회 40 김병삼 목사의 하나님의 시선(356회) 의지의 항복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 30 365 새벽기도	00 생명의 삶 1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30 은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다시 보는 명성교 The올림(52회) 30 TV강단 삼일(송태근)	10 강연소 통(41회) 목 통증 없이 살기
	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 진주초대-이경은,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사무엘하 7:1-3) 30 생명의 말씀	20 율령스토리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비전설교 시애틀형제(권준)	1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639회) 50 하용조 목사의 40일의 강동(영어자막)(5회)	00 생명의 양식 대환(윤영민) 30 축복의 말씀 (차영아)(363회)	00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노변담화(986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신약(13회)
	7:00	00 CTS뉴스W(31회) 20 생명의 말씀 대구동부·박성순, 포도원을 지키라(아가 2:10-17) 50 생명의 말씀 필그림·김형석, 결실을 두고 주님께로(마가복음 10:46-52)	20 행복한 쉼터 이리신광 (권오국) 50 행복한 쉼터 소명중앙 (김대성)	30분 휴먼네트워크(58회)	20 김동호 목사의 날마다 기막힌 새벽(520회) 4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691회)	00 포항중앙교회 주일예배실황 송병렬 목사
	8:00	20 [성탄특집] 내가 매일 기쁘게(3549회)	20 조점민 목사의 답답답 30 행복한 쉼터 심천포 삼한 (하태경)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20 [말씀] 최병탁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323회)	00 하나님의 음성(114회) 20 CBS 성서학당 (송태근)(4405회) 고린도전서 17강	00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 차록(34회) 성경 속 질병 이야기 30 비전메시지 새빛교회 김윤희 목사
	9:00	1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00 사랑의 메시지 에버그린 (김학필) 30 사랑의 메시지 인천제일 (이재일)	00 [말씀] 반태효 목사(방주교회)(96회) 40 Q&A 107 소요리문답(71회) 50 신약의 세계로 오심쇼(1회)	10 새롭게하소서(11379회) 김도형, 장상우 대표	00 성지가 좋다(510회) 이집트 룝소 3 3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40 CBN 크리스천 월드뉴스(164회)
	10:00	00 오마이갯생(7회) 찬양 사역자 소영재 형제 편 20 말씀대로 살라 김선교 선교사, 나의 분깃 예수 그리스도	00 사론의 꽃 필 때	20 THE NEW 하늘빛항기(10회)	00 파워인터뷰(206회) 2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74회)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김하나 목사
	11:00	00 7000마라클-특집 연말특집 미라클 프로젝트 1부 50 미라클 Moment 지금 이 순간 화성만나무료급식	00 비전설교 가나안 (장경덕) 30 비전설교 베이직 (조정민)	10 [말씀] 황성은 목사(창동영광교회)(234회) 50 예수동행일기(16회)	20 세상을 보는 창(289회) 50 만나다(7회)	00 성지가 좋다(510회) 이집트 룝소 3 3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50 성찬의 소리 성찬교회 오일환 목사
오후	12:00	00 CTS뉴스W(31회) 20 신앙예배이 김선영 목사(소양성결교회)-잠 30 수영로의 시간 이규현, 돌아갈 집이 있는가?	00 사랑의 메시지 백송 (이순희) 30 사랑의 메시지 하늘꿈(신용대)	10 바이블 필름 (마태복음)(12회) 20 [말씀] 이권호 목사(순복음대구교회)(109회)	00 TV강단 진주초대(이경은) 30 TV강단 그린시티(조성익)	20 성경 속 전쟁사(2회) 아브라함의 전쟁 50 복음강단 부민교회 박현영 목사
	13:00	20 오정현 목사의 비전목상 3분 미라클(264회) 30 구약역 목사의 트로 찬양교실(12회)	00 행복한 쉼터 임마누엘 (전담양) 30 행복한 쉼터 총일 (박상현)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254회) 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66회)	00 율포원(694회)	30 성지가 좋다(510회) 이집트 룝소 3
	14:00	00 [생방송]Calling GOD 50 원더풀우먼(11회) 나는 어떻게 이별의 슬픔을 이겨냈어?	00 성탄특집 GOODTV 스페셜 주님의교회 음악극_하나님의 사람, 프란시스 1부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20 [말씀]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646회)	00 말씀의 힘 창일(이사무엘) 30 CBS 아카데미 숲(191회)	00 새에덴 강단 소강석 목사
	15:00	40 7000마라클-특집 연말특집 미라클 프로젝트 1부	00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라다굼	00 [말씀] 류용걸 목사(와성통증양장로교회)(288회) 40 생명의 삶	20 CBS 성서학당 (김홍규)(4404회) 민수기 14강	00 만나 워십 김병삼 목사
	16:00	30 생명의 말씀	00 오희숙 목사의 국제 바이블 사관학교 30 사랑의 메시지 순복음참아름다운 (안병찬)	00 하용조 목사의 오한복음 강해(85회) 40 바이블 필름 (마태복음)(12회) 50 [말씀] 박성근 목사(남가주세누리교회)(714회)	10 통박사 조병호의 통 성경학교(38회) 50 맞나는 교회(29회)	00 내 삶의 행복(187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17:00	00 더워십 아신사(남산신교회) - 생명의 빛 예수 50 신앙예배이 원보연 목사(가재 하늘빛합일교회)	00 조점민 목사의 답답답 10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40 행복한 쉼터 영광의 (조이엘)	30 2025 은누리 사역축제 (지금 여기, 사도행전) - 주제강의(1회)	50 영혼의 양식_산위의마음(김영준)	00 강연소 통(41회) 목 통증 없이 살기 50 비전메시지 수원은혜교회 황유석 목사
	18:00	00 생명의 말씀 덕천-김경년, 끝까지 사랑하려면 (1) 30 위대한 유산(11회) 메리 스크랜튼	10 우리들의 지식살롱 12세 40 더 깊은 올림 헤세드 워십	10 레디온(164회) 5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66회)	00 TV강단 당진동일(이수훈) 30 TV강단 김포출은나무(이성현)	30 복음강단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
저녁	19:00	20 [성탄특집] 뮤지컬 '예수 그리스도' 1부	00 사랑의 메시지 우리들 (강양재)	30 구약의 세계로 <오심쇼>(7회)	00 TV강단 거룩한빛광성(곽승현) 30 TV강단 동승(주학선)	00 성지가 좋다(510회) 이집트 룝소 3 30 복음강단 청주사남교회 장승권 목사
	20:00	20 더워십 이재은(강릉반석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움시다	00 김윤희 박사의 성경 에센스 10 비전설교 혜성 (정영호) 40 김신욱 목사와 함께하는 신앙독후 50 윤호균 목사의 말씀강해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떠나보면 알게되는 (여행의 이유)(9회)	00 TV강단 순복음원당(고경환) 50 크리스천칼럼_중앙성결(한기재)	00 비전메시지 강남비전교회 한재록 목사 40 비전메시지 The Life 지구촌교회 김민환 목사
	21:00	00 조셉프린스 목사의 뉴크리에이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 30 말씀노트·말씀한정(4회) 시편 105편 50 CTS뉴스	40 GOODTV NEWS	00 소망교회 주일예배 50 CGN라이브워십 <다와서 찬양해> -은누리교회 SNS청년부-(55회)	00 CBS 성서학당 (송태근)(4405회) 고린도전서 17강 50 잘 믿고 잘 사는 법(43회)	10 김하나 목사의 말씀강해(65회)
	22:00	2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00 GOODTV 특별간증 2025 감사특방	1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2025년 12월 22일 30 고한교회 리턴즈, 믿음원정대(17회) 50 예수동행일기(16회)	00 CBS NEWS 10 20 새롭게하소서(11379회) 김도형, 장상우 대표	0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507회) 20 소문난 성경교실(699회) 김영근 목사 첫 번째 9강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10회)
	23:00	10 CTS 30년 믿음의 명작 CTS특집다큐 예수의 길을 달리다	00 오 자유여	10 켄센 프랭클린의 부흥(503회) 40 생명의 삶 2025년 12월 22일 50 바이블 필름 (마태복음)(12회)	10 더 콜링(164회) 30 목사님 궁금해요(135회) 5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691회)	00 장종현 목사의 비전메시지(3회) 40 리바이츠 워십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24:00	00 Calling GOD(2401회)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00 율령스토리 10 이석 목사의 믿음으로 사는 삶 50 솔직한 새끼양들의 토크쇼 저 새끼양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최병탁 목사(또감사선교회)(256회)	10 2024 한소망교회 감사 부흥회(14회) 50 성경꿀팁 이것이 궁금하다(96회)	00 새에덴 강단 소강석 목사
	1:00	00 말씀대로 살라 김선교 선교사, 나의 분깃 예수 그리스도 40 내가 매일 기쁘게(3548회)	10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닙니까 백석대 장종현 총장	00 [말씀] 백금산 목사(예수가족교회)(216회) 4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561회)	00 CBS 아카데미 숲(191회) 40 임석순 목사의 주일 강단(506회)	00 만나 U(9회)
	2:00	30 사신사서 4인4색, 1+ALL의 축복-이규영 목사	00 매일 주와 함께	20 [말씀] 김형익 목사(벤살롱교회)(402회)	30 TV강단 시온(박성준)	00 만나 워십 김병삼 목사
	3:00	0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최병락 목사 50 율령스토리(72회) 몬테소리	00 GOODTV 특별간증	00 [Global Sermon] Jentezen Franklin's Revival(219회) 30 [말씀] 임채영 목사(서부성결교회)(385회)	00 맞나는 교회(29회)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김하나 목사
	4:00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 육한홍 목사 30 내 영혼의 찬양	00 GOODTV 오늘의 찬양 10 생명양식 데일리큐티 20 새벽을 깨우는 말씀 인천제2교회 (이건영)	10 [말씀] 마크 최 (뉴저지은누리교회)(517회)	00 CBS 성서학당 (신우안)(3400회) 출애굽기 39강 50 CBS 교회사식(1030회)	0 클래식 말씀의 창(48회) 이정의 목사 30 C채널 명성교 다시 복음으로(46회)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



2 0 2 5 C H R I S T M A S C A M P

MERRY  
Christmas  
HAPPY NEW YEAR

# 세계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the Light of the World

2025. **12.23**(화) - **25**(목)

OAPC



최재성 목사  
밀알교회 담임목사



강해주 목사  
YEF Korea 대표



장시문 목사  
새안교회 담임목사



신진철 목사  
부흥교회 담임목사



신유정 목사  
엘림 대표



김태한 목사  
영도교회 담임목사



정상우 목사  
동산교회 담임목사



이상기 목사  
AM Korea 대표



김찬유 목사  
YD Korea 대표



주빌리워십  
Jubilee Worship

크리스마스 캠프는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가입 교단 소속 교회들과 다양한 선교회 및 단체들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대사명을 이루는 그레이트커미션 선교대회에서 진행되는 초교파 크리스마스 수련 캠프입니다.

GREAT COMMISSION  
MISSION CONFERENCE

[등록방법]



1. 홈페이지에서 등록  
christmascamp.or.kr
2. QR코드 이용한 등록

[문의/장소]



070-4200-7613  
christmascamp.help@gmail.com  
강원 횡성군 둔내면 청태산로 466번길 55